

kotra 베트남 비즈니스 NEWS 12월

발행일 : 2025년 11월 28일

KOTRA VIETNAM BUSINESS NEWS



✓ 베트남 해외시장뉴스·월간 뉴스·프로젝트 동향	2
✓ 미국 통상정책 주요 동향 관련 해외시장뉴스	17
✓ <팀코리아협의회 동장> 2025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19
✓ <기업탐방> 오리온 베트남	박세열 대표이사 21
✓ <법률> VNeID제도로 인한 비거주자인 법인장 이슈	전현우 변호사 24
✓ <회계>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21탄	엄진용 회계사 26
✓ <통관> 베트남·미국 무역 협정 합의와 일부 농산물 관세 면제	이여람 관세사 28
✓ 금월의 유망 성 투자 정보 <다낭시>	31
✓ <이달의 보고서> 일본 시니어시프트 대전환, 우리 기업의 새로운 기회	42
인도 반도체 산업 동향과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	
✓ <이달의 전시회> 베트남 호치민 하드웨어, 수동공구 전시회	43
✓ 베트남 및 아세안지역 주요 경제 지표	44
✓ 사업안내 및 공지사항	49





지속가능한 먹거리로의 전환, 베트남 식품 산업의 친환경 흐름

- 베트남 식품 및 외식산업, 재활용과 순환경제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 트렌드 확산
- 베트남 정부, 유기농 인증체계와 친환경 농업정책 지원을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

베트남 식품 및 외식산업, 재활용과 순환경제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 트렌드 확산

베트남 식품 및 외식산업은 최근 5년간 약 5배 성장하며 경제 성장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유로모니터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시장 규모는 약 979.2백만 달러였으며, 2025년에는 약 4,949.6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연평균 약 50% 성장한 수치다. 해당 산업은 풀서비스 레스토랑, 패스트푸드, 카페, 테이크아웃, 노점 등 전반의 외식 분야를 포함한다. 이처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베트남은 재활용과 순환경제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식품 소비와 생산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베트남 중산층 확대와 의식적 소비 확산

소득 향상으로 중산층이 빠르게 성장하며 소비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맥킨지에 따르면 2030년까지 하루 11달러 이상 소비하는 계층이 약 7,70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에는 전체 인구의 10% 미만이었으나, 2020년에는 약 40%, 2030년에는 75%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의식적 소비가 확산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91%가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을 인지하고 84%는 친환경·윤리적 제품에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향을 밝혔다. 이는 단순한 소득 증가를 넘어 가치소비가 확산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다.

지속가능한 식품 소비에 대한 인식 및 구매력 확대

중산층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식품 소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QnMe의 조사에 따르면 하노이와 호치민 소비자의 35%가 식음료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했고, 전체 응답자의 90% 이상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여성(42%)과 20~29세 연령층(41%)의 인식이 높았다. 또한 약 60%가 지속가능한 식품 구매 시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5% 인상까지 수용 가능하다고 답했다. 현지 유통업체들은 최근 일반 소비자층에서도 유기농,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식품 생산을 실천하는 주요 기업

소비자 인식 변화에 따라 베트남 주요 식품기업들이 친환경 생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① Vinamilk는 테트라팩과 협력해 우유팩 재활용 프로그램 'Pretty Cartons Reborn'을 운영 중이며, 2024년 6월 시작 이후 18만 개(1.5톤)의 우유팩을 수거했다. 포장재 경량화로 연간 약 450톤의 플라스틱을 절감하고, Green Farm 유기농 라인을 통해 저탄소 농업모델을 도입했다.

- ② TH true MILK는 태양광 설비로 연간 약 800만 kWh 전력을 생산, 이산화탄소 배출을 5,000~6,000톤 감축했다. 또한 사탕수수 부산물로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며, 플라스틱 감축과 재활용을 병행하고 있다.
- ③ Acecook Vietnam은 모든 컵라면을 종이컵으로 전환하고, 바이오 기반 포크를 도입해 연간 수백 톤의 플라스틱을 절감했다. 바이오매스 보일러와 태양광 발전을 통해 탄소 배출을 43% 감축했으며, 2023년 베트남 'CSI 100' 지속가능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지속가능한 외식문화의 확산, 제로웨이스트 다이닝의 부상

외식업계에서도 제로웨이스트 다이닝이 확산되고 있다. 2025년 호치민 채식 음식 축제는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 ① Pizza 4P's는 빈증점에서 제로웨이스트 매장을 운영하며, 음식물 쓰레기 43톤을 재활용하고 유리병 20만 개 이상을 세척·재사용했다. 폐식용유 12톤은 바이오디젤로 전환했고, 폐유니폼도 연료로 재활용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재활용률 84%를 달성했다. 또한 FSC 인증 포장재 사용과 전기 오토바이 배송, 고객 반납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 ② Tales는 달랏 인근 유기농 농장에서 채소를 재배하고, 식자재를 완전 재활용하는 코스 메뉴 'ZERO'를 통해 음식물 폐기물을 제로화했다. 또한 2025년부터 1만㎡ 규모의 산림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 ③ Chapter Dining은 하노이의 미술관 레스토랑으로 현지 재료 80%를 북부에서 조달하고, 잔여 식재료를 발효·절임·훈연 등으로 재활용한다. 조리 후 남은 재는 염지 공정에 재사용하며, 완전 순환형 조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속가능한 식품산업을 위한 정부 제도

베트남 정부는 2020년 총리 결정 885/QĐ-TTg에 따라 2030년까지 유기농 농지 비율을 국토의 1% 이상으로 확대하고, VietGAP 적용 면적을 매년 10~15% 늘릴 계획이다. 또한 유기농 인증비용 보조와 세제 감면, 기술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100% 친환경 봉투 사용을 의무화하고 일회용 포장재 생산·수입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유기농 인증은 USDA, ECOCERT, IFOAM 등 국제 기준을 따르며, 대표 기관으로 Control Union, NHO-QSCert, PGS Vietnam이 있다. 특히 PGS는 절차가 간소해 3~4개월 내 인증 가능하며 중소농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VietGAP은 정부 주도의 대체 인증으로, 인증기간은 1~3개월이며 NHO-QSCert, Quatest 3, Vietcert 등이 관리기관으로 참여한다.

시사점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식품 및 외식 산업은 윤리적 소비와 순환경제가 결합된 새로운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중산층의 가치소비 확산에 따라 친환경 인증, 유기농 농지 확대, 일회용 포장재 금지 등 정부 정책이 강화되는 한편, 제로웨이스트 레스토랑과 팜투테이블 모델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상 중이다. 다만, 생산비와 인증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단기 수익보다 중장기 브랜드 철학과 전략이 중요하다. 진출 기업은 단순 수출보다 현지 농가 협력, 재활용 소재 포장, ESG 스토리텔링 결합 등 책임 있는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 베트남에서 지속가능성은 일시적 트렌드가 아닌 장기 경쟁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베트남, 피클볼 열풍에 빠지다

- 베트남 피클볼 시장의 성장과 비즈니스 기회
- 웰니스와 커뮤니티 소비의 결합

피클볼의 폭발적 성장과 여가산업의 재편

2023년까지만 해도 베트남에서 생소했던 피클볼이 불과 3년도 되지 않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2025년 상반기 기준 피클볼 관련 제품 판매액은 약 510억 동(약 2000만 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82% 증가했다. 이 같은 성장세는 단순한 스포츠 유행이 아니라 베트남 여가산업 구조 전반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소비·산업 현상으로 평가된다. 데이터 플랫폼 Metric.vn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피클볼 제품 매출은 228억7000만 동(약 87만 달러)로, 전년 동기 12억 동(약 4만5600달러) 대비 19배 증가했으며, 상반기 매출만으로도 2024년 연간 매출(272억 동, 약 103만 달러)의 거의 두 배에 달했다.

제품 가격대별로는 50만~75만 동(약 19~28.5달러) 구간 제품이 가장 높은 매출인 750억 동(약 285만 달러)을 기록했으며, 이 중 쇼피 플랫폼이 480억 동(약 182만 달러)을 차지했다. 이어 20만~35만 동 제품이 600억 동, 35만~50만 동 제품이 550억 동 매출을 올렸다. 평균 판매가는 전년과 유사해, 매출 증가는 가격 상승이 아닌 소비자 확대에 의한 결과임을 보여준다. 주요 온라인 플랫폼인 쇼피, 틱톡샵, 라자다, 티키에서 240만 개 제품이 판매되었으며, 이는 베트남 인구의 약 2.4%가 피클볼 제품을 구매한 수치다.

건강과 소셜이 만든 ‘피클볼 열풍’

베트남의 피클볼 인기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건강’과 ‘소셜 교류’, ‘라이프밸런스’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확산되었다. 2024년 9월, 스포츠국장 당 하 비엣과 아시아 피클볼연맹 대표단이 회의를 갖고 베트남이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피클볼 국가임을 공식 확인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인프라와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피클볼의 가장 큰 강점은 낮은 진입장벽이다. 테니스처럼 넓은 코트나 강한 체력이 필요하지 않으며, 골프처럼 고가의 장비나 복잡한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다. 패들과 공, 네트만 있으면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초보자도 짧은 시간 안에 경기 흐름을 익힐 수 있다. 이러한 접근성 덕분에 학생부터 직장인, 은퇴자, 가족 단위 참가자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즐기는 생활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젊은 세대는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중장년층은 건강한 여가활동으로 피클볼을 즐기며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커뮤니티와 문화로 확산되는 피클볼

피클볼의 핵심 가치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커뮤니티 형성’이다. 현지 참가자들은 “피클볼은 사교적이고 친근한 스포츠로,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다”고 말한다. 페이스북 등 SNS 상의 피클볼 그룹은 이미 수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노이·호치민·다낭 등 주요 도시마다 클럽이 생겨 정기적인 연습과 토너먼트를 개최하고 있다. 외국인 창립자들이 주도한 피클볼사이공 같은 클럽은 급성장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피클볼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패밀리 스포츠’로 발전하며,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액티브 라이프스타일’의 아이콘

피클볼은 베트남 젊은 세대에게 ‘활동적인 삶(Active Lifestyle)’을 상징하는 문화 코드가 되었다. 코트 위의 활동적인 이미지가 SNS를 통해 확산되며 #PickleballLife, #ActiveVibes 등의 해시태그가 인기를 끌고 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화려한 장비와 경기 모습이 콘텐츠화되며, 피클볼은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진화했다. 시장조사기관 Metric.vn은 피클볼을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문화 코드”라고 평가하며, 인플루언서 중심의 콘텐츠가 브랜드 홍보의 핵심으로 부상했다고 분석했다. 약 200명이 참가한 ‘TA Vital 피클볼 토너먼트’는 단순한 경기 이상의 축제로, 건강과 패션, 트렌드를 결합한 대표적 사례로 언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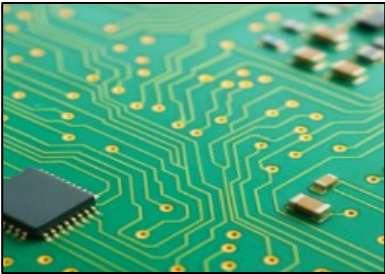
스포츠를 넘어 산업으로 성장

피클볼은 이제 완전한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노이에서는 2024년 한 해에만 200개 이상 코트가 신설되었으며, 호치민은 이보다 많다. 후인 탄팻 스포츠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코트는 평일에도 예약이 가득 차 있고, 테니스보다 2~3배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여러 도시의 공공체육시설은 테니스나 배드민턴 코트를 피클볼 전용으로 개조 중이며, 일부 아파트 단지는 농구장을 피클볼 코트로 전환할 정도로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기업의 참여도 활발하다. 호찌민의 섬유기업 가르멕스(Garmex)는 비나프린트와 함께 1000~3000㎡ 규모 코트를 개발 중이며, 2025년 2분기 의류 매출이 없음에도 해당 사업에서 5억 동(약 1만9000달러)의 수익을 거두었다. 나이키, 아디다스, 언더아머, 데카트론, 안타, 리닝 등 글로벌 브랜드가 피클볼 전용 라인을 출시했고, 베트남 로컬 기업들도 라켓과 의류, 액세서리를 생산하며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토너먼트 시장 역시 급성장 중이다. 2025년 10월 열린 VTV AO 스미스 피클볼 오픈’에는 700명 이상이 참가, 상금 10억 동(약 3만8000달러)이 걸렸다. 베트남계 미국인 선수 광 즈엉(Quang Duong)과 전 테니스 스타 앙드레 아가시(Andre Agassi)가 출전해 화제를 모았다. 정부와 언론이 공동 주최하는 ‘현대 탄콩 컵’ 등도 이어지고 있으며, 중소기업들도 낮은 비용으로 스폰서십에 참여하면서 피클볼은 수익성과 접근성을 모두 갖춘 신흥 스포츠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여가·소비 트렌드이자 신시장 기회

피클볼은 낮은 진입장벽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는 베트남의 대표 여가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코트 인프라 확충, 토너먼트 활성화, 관련 용품 시장의 확산은 피클볼이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 기업에도 스포츠용품, 패션, 헬스케어 분야에서 유망한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주도의 베트남 반도체 산업... PCB(인쇄회로기판)를 중심으로

- 외국계 중심의 생산 구조와 정부의 기술 내재화 추진 중
- 베트남 북부 지역 중심 글로벌 기업 투자 확대

PCB의 역할 및 HS코드

PCB는 절연기판 위에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도체가 형성된 핵심 전자부품으로, 전기적 연결과 기계적 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며 스마트폰·가전·자동차·항공기·반도체 등 전기 연결이 필요한 거의 모든 산업 제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해당 품목의 HS코드는 8534.00이며 일반 관세는 5%이나, AKFTA·VKFTA·RCEP 등을 활용할 경우 단면·양면·다층·기타 기판 모두 무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베트남 관세체계 역시 같은 구조로, 8534.00 품목군 전체에 대해 협정 활용 시 0%로 수출입이 가능하다.

베트남 PCB 산업의 공급망 구조와 성장 전망

베트남의 PCB 산업은 고부가가치 전자부품 분야임에도 현지 기업만으로 설계·제조를 수행할 역량이 부재하며, 현재 생산은 중국·대만·일본·한국 기업들이 본국에서 설계·소재개발을 담당하고 베트남에서는 합지·적층·도금·회로·인쇄 등 노동집약 공정을 맡는 분업형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C=SET+1' 전략을 기반으로 2030년 반도체 산업 기반 조성, 2040년 글로벌 허브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PCB는 반도체 생태계의 기반부품으로서 향후 기술 내재화와 전자부품 국산화 정책의 수혜가 예상된다.

베트남 PCB 산업의 수출입 규모

2024년 베트남의 PCB(HS 8534.00) 수출액은 약 20억8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2.9% 증가했으며, 중국(26.7%)·한국(19.2%)·홍콩(16.4%)·일본(8.1%) 등이 주요 수출 대상이다. 태국·미국·대만·멕시코·말레이시아·인도도 상위권을 형성하며 전반적으로 다양한 시장으로의 공급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반면 수입은 2024년 46억1900만 달러로 14.3% 증가했고, 중국이 47.6%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한국(23.0%), 홍콩(14.0%), 대만(8.5%) 등이 뒤를 이으며 주요 공급국 역시 동아시아 지역에 집중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베트남 PCB 산업의 글로벌 기업 투자 현황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이후 베트남은 한국·일본·대만 기업 중심의 PCB 생산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북부 지역에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삼성전기는 타이응웬 법인을 기반으로 FC-BGA 생산 투자를 확대해 2024년 2분기 양산을 시작했고 매출 24%, 순이익 64% 증가를 기록했다. LG이노텍은 하이퐁에서 카메라 모듈·패키징 기판을 생산하며 2025년까지 V3 공장 증설을 통해 생산능력을 두 배로 확대한다. BH와 에스아이플렉스는 FPCB 중심으로 베트남 생산 비중을 높이며 설비 이전과 공급망 재편을 진행 중이고, 영풍 계열사·메이코·폭스콘 등도 신규 공장 설립 및 대규모 프로젝트로 현지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 인터뷰

현지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서 운영되던 설비의 다수가 이미 베트남으로 이전되었으며 현지 공장의 지속적 증설로 생산능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한국 협력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외주 공정이 최근에는 베트남 기업의 자체 가공·생산으로 대체되는 사례가 늘며 산업 기반이 고도화되고 있고, 인력 구성에서도 베트남 현지 인력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는 등 기술 내재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제시되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베트남 PCB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점 및 진출 전략

베트남 PCB 산업은 여전히 해외기업 주도 구조로, 현지기업의 설계·개발 능력은 제한적이어서 향후에도 외국 기업이 기술·설비를 제공하고 베트남이 가공·조립 중심의 역할을 담당하는 체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베트남 정부의 'C=SET+1' 전략에 따라 반도체·전자부품 산업의 기술 내재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PCB 역시 정책적 육성 대상에 포함되며 성장성이 높게 전망된다.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글로벌 기업의 생산 클러스터가 확장되는 만큼, 한국 기업은 대형 제조사의 공급망 진입, 현지 인력의 기술 역량 강화 지원, 품질관리 체계 구축, 정부 협력 프로젝트 참여, 북부 중심의 전략적 입지 선정 등을 통해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웰니스 라이프에 주력하는 베트남 소비자를 잡아라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건강에 대한 인식 향상, 유기농 식품 및 건강보조제 소비 확대
-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제품 출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브랜딩 전략 필요

웰니스 라이프스타일의 등장 배경 및 현황

베트남에서 체중 관리 및 웰니스 라이프에 대한 관심은 201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되었으며, 이는 선진국 대비 다소 늦은 편이다. 경제 성장과 함께 서구식 고칼로리 식습관이 유입되어 대도시를 중심으로 비만율이 상승하자, 웰빙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최근 베트남의 웰니스 트렌드는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안녕, 영양, 라이프스타일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하노이, 호치민시 등 대도시에서는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요가, 명상, 피트니스 센터, 기업 웰니스 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하게 확산 중이다. 단순 치료를 넘어 활력과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과 유사한 양상이다.

과체중 및 비만 인구 급증과 시장 성장세

2025년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의 과체중 및 비만 인구 비중은 38% 이상 급증하여 동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2022년 비만 문제를 국가 보건 과제로 지정했다. 현재 베트남 성인 비만율은 약 20% 수준이며, 특히 여성의 비만 증가율(9.5%)이 남성(6.9%) 대비 높다. 도시 지역의 비만 발생률이 26.8%에 달해 농촌보다 훨씬 높아, 급속한 도시화와 생활 패턴 변화가 비만 인구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건강과 위생 인식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설문 응답자의 46%가 코로나19로 인해 식습관을 바꾸었다고 답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활성화도 건강식 제품 접근성 개선에 기여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Statista에 따르면, 베트남 헬스케어 및 웰빙 시장은 2023년 기준 약 8억620만 달러 규모로, 최근 6년간 연평균 32% 수준의 고속 성장세를 기록했다. 2028년까지는 연평균 약 6.5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아세안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성장 수준이다.

현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웰니스 제품군 동향

웰니스 라이프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중, 최근 여성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받는 식품/생활 소비재는 유기농 식단 및 제품, 기능성 음료, 건강 보조제 세 가지로 크게 구분된다.

1. 유기농 식단 및 제품

베트남 소비자들은 칼로리 조절,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 유기농 식품 섭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웰빙 식단을

추구한다. 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 주요 도시에는 유기농 및 비건 전문 식당이 쉽게 발견되며, 정기 배달 구독 서비스도 생겨나고 있다. 라쿠텐 인사이트(2023) 설문조사 결과, 야채와 과일 부문에서 유기농을 찾는 소비자가 80%에 달하며, 곡물(49%), 우유 및 유제품(49%), 계란 및 육류 외 축산물(48%), 육류(37%) 순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소비자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위해 화학 물질, 살충제, 합성 첨가물이 없는 식품 구매를 희망한다. 이러한 수요에 힘입어 베트남 내 유기농 식품 생산도 확대되고 있다.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발표에 따르면 유기농 농업 경작 면적은 2016년 5만3350헥타르에서 2020년 약 24만 헥타르로 4배 이상 증가했으며, 46개 성에 걸쳐 100개 이상 기업과 1만7000명이 종사 중이다. Vinamilk와 TH True Milk 등 베트남 대표 유제품 브랜드는 유기농 생산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글로벌 브랜드 중에서는 일본 제품이 유기농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AEON TopValu Organic은 화학 물질 등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 표준 제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아직 베트남 내 생산이 적은 제품군으로 현지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끈다. 미국의 브래그, 프랑스의 마르칼 등 해외 유기농 식품도 프리미엄 식품관에서 주목받고 있다.

2. 기능성 음료

베트남 기능성 음료 시장은 웰니스 트렌드를 반영하여 스펙트럼이 다양화되고 있다. 주요 인기 품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무설탕/이온화수는 당분 없는 건강한 수분 공급을 원하는 30세 이하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가 높으며, 천연 알칼리 이온수와 탄산수 소다의 인기가 지속된다. 과일 스무디 및 주스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활용한 디톡스 음료와 스무디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층의 31%가 애용한다. 견과류 우유는 식물성 기반 음료로 건강 및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음료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최근에는 저당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스포츠 및 이온 음료는 운동 전후 수분과 전해질 보충을 위한 코코넛 워터 기반 이소토닉 음료 등이 각광받고 있으며, 에너지 드링크도 선호도가 높다. 기능성 차 및 저당 음료는 현지 소비자들의 차 선호도가 높은 가운데 저당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여러 국내외 티 브랜드가 기능성 차와 건강 지향적 신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3. 건강 보조제

베트남 건강 보조제 시장은 소비자 구매 확대에 힘입어 글로벌 및 로컬 기업의 진입으로 경쟁이 치열하다. 허벌라이프, 암웨이, GNC, 애보트, 메가 라이프사이언스, 트라파코 등 국내외 브랜드가 대표적인 선도 업체로, 현지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신제품 개발과 온라인 판매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트라파코, DHG 파마, 남 듀옥 등의 현지 기업들은 전통 의학 및 허브 기반의 제품으로 신뢰를 얻고 있으며, 허벌라이프, 암웨이, 애보트 등의 다국적 기업은 광범위한 제품 라인과 높은 브랜드 충성도로 높은 판매량을 달성하고 있다. 최근 인기 제품은 면역력 강화, 피로 회복, 미용 및 여성 건강 증진에 집중된다. 코로나19 이후 비타민 C, 멀티 비타민, 홍삼과 같은 면역력 관련 제품이 특히 인기를 얻고 있으며, 부작용 우려로 인해 알로에, 인삼 등 허브 성분 건강 보조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연령대별 구매 비중은 55세 이상 고령층(24%), 45-54세(20%), 25-34세(18%), 35-44세(16%), 16-24세(1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령층은 노화 방지 및 뼈 건강 제품을, 젊은 여성층은 피부 미용과 체중 조절을 위한 콜라겐, 비오틴 등을 주로 찾는다. 또한, 기억력 증진 및 시력 개선 제품도 젊은 층에서

인기가 있다. 체중 감량 보조제는 녹차, 영지버섯 등 천연 성분과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등을 함유한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주요 유통채널 및 시사점

시장조사기관 Standard Insight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 소비자의 97.4%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웰빙 관련 제품을 구매하며 2.6%가 온라인으로 구매한다. 허벌라이프, 암웨이, 뉴스킨 등 글로벌 기업은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오프라인 유통 및 판매를 주도하고 있다. 팜마시티, 롱차우 등 현지 오프라인 드럭스토어와 Vinmart, Aeon 등 주요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서도 관련 제품 판매가 활발하다. 현재 점유율은 낮으나, 온라인 유통채널은 향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기업들이 Tiktok vn, lazada.vn, shopee.vn과 같은 이커머스 플랫폼에 온라인 스토어를 구축하고 있으며, 라자다나 티키는 유기농 및 웰빙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한 파트너십 및 전용 카테고리를 신설했다. 온라인 유통망의 활약으로 소도시 및 시골 지역 소비자의 웰빙 제품 구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여성 소비자들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정보를 얻고 구매로 연결하는 트렌드가 주목된다.

베트남 웰니스 시장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증가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높다. 중산층 증가와 디지털 기술 확산도 주요 확산 요인이다.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에서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고급 소비재 지출이 증가하는 추세다. 현지 바이어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 소비자들은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으며, 특히 피부 관리, 다이어트, 면역력 강화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다. 우리 진출 기업은 이러한 현지 트렌드와 소비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현지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베트남 정부의 위조 및 과대 홍보 상품 단속 강화로 규제 및 인증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관련 법령 준수와 함께 계약을 체결한 현지 유통망에 대한 검증 및 품질 관리가 필수적이다.



젊은 소비가 여는 베트남 미용의료기기 시장, K-뷰티 기업에게 온 기회

- 1억 인구가 여는 기회... 베트남 미용기기 시장 본격 확대
- SNS소비 확산이 만든 베트남 홈케어 디바이스의 폭발적 성장

베트남 미용 시장 고도화와 소비 변화

베트남은 약 1억 명의 인구와 평균 연령 33.4세의 구조적 특성을 지니며, 중산층 확대와 함께 자기 관리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존 스킨케어 중심 소비에서 벗어나 제모·탄력·여드름·색소 케어 등 기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20~30대 사이에서 스파·에스테틱 이용이 일상화되고, 가정용 기기까지 병행하는 개인 맞춤형 관리가 새로운 소비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 연예인과 인플루언서의 뷰티 루틴 영향도 커져 한국·일본산 레이저·RF·LED 장비가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되며, 퍼스널 케어 가전 시장 전반의 고급화가 진행 중이다. 유로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 퍼스널 케어 가전 판매액은 2022년 1조4010억 동에서 2024년 1조7329억 동으로 약 23.7% 증가했으며, 2028년에는 2조3256억 동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세부 제품군에서는 전통 세안기와 바디 웨이버, 헤어 케어 가전 모두 안정적인 확장세가 예측된다.

집에서 하는 홈케어의 일상화

베트남에서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홈케어 미용기기 소비가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세안 미용기기, 피지·여드름 제거 기기, 주름·탄력 개선 기기, 레이저 제모기, LED 마스크 등이 고르게 이용되고 있는데, 이 중 세안 미용기기의 선호도가 특히 높다. 대도시의 습도, 미세먼지, 대기오염으로 인해 모공 막힘과 트러블이 잦아지면서 기기를 활용한 클렌징이 일반 세안보다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점이 주된 배경이다. 여기에 K-뷰티 콘텐츠를 통한 '세안 단계의 완성도가 피부 상태를 결정한다'는 인식이 강화되며, 세안 미용기기가 홈케어 입문 제품으로 자리 잡았다. 주요 제품군은 파나소닉의 세안 기기(6,990천 VND), Reiwa의 피지 제거 기기(650천 VND), Halio의 탄력 개선 기기(3,350천 VND), IPL 레이저 제모기(1,500천 VND), Therabody의 LED 마스크(11,890천 VND) 등으로 형성된다.

글로벌 기업의 진입과 소셜미디어 확산

베트남에서는 클리닉·스파용 전문 장비 수요와 홈케어 기기 수요가 동시에 확대되며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쇼피와 틱톡숍 같은 소셜커머스 플랫폼 확장으로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쉽게 도달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장 진입장벽이 낮아진 점도 특징이다. 젊은 소비층은 리뷰와 숏폼 콘텐츠로 제품을 확인하고 즉시 구매하는 패턴을 보이며, 이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게도 새로운 기회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한국·일본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을 전략적 확장 영역으로 인식하고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 한국의 LG는 LED 마스크 등을 판매하며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Panasonic은 얼굴·바디 전용 라인을 운영 중이다. 한국 기업들 가운데 우리메카는

2025년 9월 마이크로니들링 기기 CODE-X 론칭을 예고했고, 유니온메디컬은 피부 레이저 장비 수요 증가에 따라 현지 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다. 라메디텍 또한 2025년 7월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며 관련 제품 인증을 완료했다.

베트남 진출 기업 인터뷰: 시장 기회와 구조적 장애요인

베트남 의료 미용 업계 관계자는 베트남 시장이 젊은 인구 구조와 높은 미용 관심도를 기반으로 전문 피부관리와 홈케어 기기가 동시에 성장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젊은 층에서 피부 탄력 증가 요구가 크게 늘며 신기술 기반 제품에 대한 기회가 향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베트남 의료 미용 유통 구조는 병원·치과·스파가 혼재된 복합 구조라 진입 방식을 정하기 어려우며, 인허가·제도 정보 부족이 핵심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시장 구조를 잘 이해하고 현지에 맞는 전략을 구축한다면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시사점

베트남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젊은 인구와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을 기반으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단순 미용이 아니라 기능성 중심의 효과를 강조하는 추세다. 홈케어 디바이스는 일상적 관리 도구로 자리 잡아 관련 수요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술력과 효과를 강조한 스토리텔링, 명확한 인허가 전략, A/S 체계 구축이 경쟁력 확보의 핵심 요소로 부상한다. 규제 측면에서는 미용기기가 의료기기(Class A~D)와 일반 기기로 나뉘며, 레이저 등 인체 직접 작용 장비는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결국 한국산 디바이스는 이미 구축된 프리미엄·신뢰 이미지를 활용해 규제 대응과 콘텐츠 전략을 강화할 경우 시장 확장 기회가 충분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 절삭공구 시장동향

- 베트남 제조업 성장과 절삭공구 수요 증가
- 주요 글로벌 제조사의 베트남 투자 확대

상품명 및 HS코드

HS코드 8209.00은 공구에 장착되는 다양한 형태의 절삭용 교체 부품을 분류하며, 특히 텅스텐 카바이드와 같은 금속 경질합금 소재나 코팅 처리된 인서트류가 해당된다. 이러한 제품들은 금속 절삭과 정밀 가공에 필수적인 구성품으로, 기계 가공 산업에서 반복적으로 교체되는 소모성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시장동향

베트남은 제조업 전반이 빠르게 확장되면서 절삭 공구의 소비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자동차 부품·금형 등 금속 가공 수요가 증가할수록 절삭 공구 사용량도 상승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CNC·선반·밀링 등 공작기계 도입이 활발해지면서 절삭 공구 소비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제조 기반 확대와 함께 지속될 전망이다. 베트남 공작기계 시장은 2019년 약 6,000만 달러에서 2024년 약 1억 달러 규모로 약 67% 확대되었고, 연평균 10%대 성장을 기록하며 산업 전반의 가공 장비 수요 증가가 절삭 공구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제조업 유치 강화, 산업단지 개발, 첨단 장비 도입 등 정부·기업의 투자 확대에 향후 절삭 공구 시장은 꾸준한 상승세가 예상된다.

수입동향

2024년 베트남의 절삭공구(HS 8209.00) 수입액은 약 4,387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4% 증가하며 뚜렷한 반등세를 보였다. 일본이 약 1,558만 달러로 점유율 17.8%를 유지하며 최대 공급국 지위를 확보했고, 싱가포르의 37.1% 증가, 중국은 47.3% 증가하며 각각 점유율 16.6%, 14.7%를 기록해 영향력을 강화했다. 한국은 6,449만 달러 규모로 3.5%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공급 흐름을 이어갔고, 미국(101.0%), 인도(59.2%), 대만(17.9%)은 빠르게 증가한 반면, 이스라엘(-31.4%), 네덜란드(-63.9%) 등 일부 국가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전체적으로 기존 주요국 중심 구조는 유지되면서도, 신흥 공급국 비중이 커지는 '공급선 다변화' 흐름이 명확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쟁동향

베트남 절삭공구 시장은 고정밀·고내구성 제품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브랜드 중심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일본·한국·중국·유럽 기업들이 주도하며 현지 유통 법인 또는 생산 법인을 바탕으로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OSG, Kyocera, Dormer Pramet, Fullandi Tools 등이 법인을 운영하며 시장 점유

확대하고 있으며, Kyocera와 한국 Widin처럼 현지 공장을 보유한 기업도 있다. 이들 기업은 제조·연구·기술지원 체계를 결합해 베트남 내 주요 전자·기계·금속 가공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품질 안정성 측면에서 고정적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유통구조

베트남의 절삭공구 유통은 크게 두 방식으로 나뉜다. 첫째, 글로벌 기업이 유통 법인 또는 판매 사무소를 설립해 자사 제품을 공식 수입·판매하는 구조로, 하노이와 호치민을 중심으로 대리점·도매상·공구상가 등을 통해 공급망을 구축하며 판매·기술지원·A/S 역할에 집중한다. 둘째, 글로벌 기업이 베트남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현지 협력사·가공업체·OEM 파트너 등에 공급하는 구조로, 제조 클러스터 확대와 함께 빠르게 늘고 있다. 이 방식은 리드타임 단축과 비용 절감, A/S 대응력 강화에 유리해 절삭공구 시장 내 현지 생산 기반 확대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관세율, 수입규제 및 인증

2025년 기준 한국산 절삭공구 부품(HS 8209.00)의 일반관세는 5%이나, AKFTA·VKFTA·RCEP 협정 모두에서 0% 관세가 적용돼 FTA 활용 시 무관세 혜택이 가능하다. 해당 품목은 수입 시 별도 인증 절차가 요구되지 않아 절차적 부담이 낮으며,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통관 경쟁력이 높은 품목군에 속한다.

시사점 및 진출전략

베트남 절삭공구 시장은 제조업 확장과 함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정밀·고내구성 제품의 높은 수입 의존도 속에서 품질 경쟁력이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한국 제품은 가격 대비 품질 경쟁력이 강점으로 평가되며, 바이어들은 소량·맞춤형 발주, 기술 대응력, 빠른 납기 등 유연한 공급체계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FTA 기반의 무관세 혜택을 활용한 가격 메리트 확보와 함께 기술지원·A/S 강화 및 유연한 주문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현지 생산·가공 거점을 확보할 경우 리드타임 단축과 고객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향후 경쟁력 강화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인텔, 베트남 생산거점 확대, 코스타리카 공급망 일부 이전

인텔은 코스타리카 일부 공급망을 베트남 호치민시 사이공하이테크파크(SHTP) 공장으로 이전하며 조립·패키징·테스트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인텔 베트남은 누적 수출액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약 6,000명의 직원을 보유한 주요 생산 거점으로 성장했다. 이에 따라 추가 인력 채용과 함께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MOU)도 추진 중이다. 호치민시는 인텔의 고부가가치 생산 확대를 적극 지원하며, 이를 통해 지역 디지털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nsidevina.com 10.27]

▶ 베트남-미국, 상호호혜적 무역협정 공동성명 발표

ChatGPT said: 양국은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와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0% 적용을 검토하는 등 시장 개방 확대에 합의했다. 이번 협력의 일환으로 베트남항공은 보잉 항공기 50대를 구매하고, 미국 농산물 약 29억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MOU) 20건이 체결되었다. 또한 협정은 기술 협의를 거쳐 서명 및 발효될 예정이며, 상호 관세율은 기존 46%에서 20%로 인하된 수준이 유지된다. 이번 합의는 항공기·농산물 등 전략 품목 중심의 무역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를 통한 양국 교역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insidevina.com 10.27]

▶ 철도망 대개편 통해 국가 물류 인프라 강화

베트남 정부는 2025년 10월 29일 총리 결정 2404/QĐ-TTg를 통해 철도, 항만, 공항 간 연계를 강화하는 대규모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을 추진한다. 총 투자 규모는 1,544조 8,500억 동(VND)에 달하며, 21,887헥타르의 토지가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는 하노이-호치민(1,541km), 하노이-광닌(124km) 구간의 고속철 신설과 12개 신규 노선이 포함됐다. 또한 응이손·히엩푸역 항만과 룡탄·노이바이 공항, 주요 산업단지를 철도망과 연계해 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표다.

[thuvienphapluat.vn 11.04]

▶ 2026년 최저임금 7.2% 인상 확정

2025년 공포된 시행령 293/2025/ND-CP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지역별 월 최저임금을 1지역 531만 동, 2지역 473만 동, 3지역 414만 동, 4지역 370만 동으로 인상한다. 이번 조정으로 지역별 임금은 월 25만~35만 동가량 상승한 것으로, 미화 기준 약 9.5~13달러 수준의 변화에 해당한다. 여러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은 본사가 위치한 지역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며, 산업단지나 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이 우선 적용되는 방식이 유지된다.

[insidevina.com 11.12]

▶ 건설부, 12월 19일 전국 16개 사업 착공·준공 예정

2025년 12월 19일을 기준으로 베트남은 남북고속도로, 철도, 항만 등 대형 인프라 개발을 핵심으로 전국에서 총 4개 프로젝트 착공과 12개 프로젝트 준공을 동시에 진행한다. 착공 사업에는 감로-라선 확장, 탄부 터널, 호치민-쑹르엉-미투언 고속도로 확장, 라오까이-하노이-하이퐁 철도가 포함된다. 준공되는 12개 사업에는 남북고속도로 동부 구간의 광응아이-호아이년-꾸이년-반퐁 구간과 칸토-까마우 구간 등이 포함되어 주요 교통 인프라의 완성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nhandan.vn 11.12]

▶ 베트남, 내년 6월 10% '에탄올혼합유' 전국 판매 시작

베트남은 내년 6월부터 바이오 에탄올 10%를 혼합한 E10 휘발유를 전국적으로 판매할 계획이며, 공상부는 이를 규정한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기존의 E5 RON92는 2030년 말까지 사용이 허용된다.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환경 보호, 소비자 권익을 고려해 바이오 연료 혼합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E10 연료는 대부분의 차량에서 별도 개조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시장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베트남의 연간 에탄올 생산능력은 약 60만m³로 향후 수요의 약 40%를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분은 미국과 브라질에서 수입해 보완할 방침이다. 주요 정유사와 유통사가 이미 혼합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필요 시 즉시 블렌딩 작업이 가능한 상황이다.

[Vietnam.vn 11.18]

▶ 베트남 국회, 내년 정부 예산안 만장일치 가결

베트남 국회는 총 3,000조 동 규모의 2026년도 중앙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세입 1,225조 동, 세출 1,810조 동으로 편성했다. 이번 예산에는 공무원 기본급 30% 인상에 따른 지방 지원 예산 53조여 동과 지방재정수지 보조 238조여 동이 포함됐다. 전체 세출의 최대 3%가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분야에 배정되었으며, 세입 감소에 대비해 예비비 15조 동도 추가됐다. 정부는 국방·안보·사회보장·임금 개혁 등을 위한 지출과 지역 균형 개발 투자를 지속할 방침을 밝혔다. 올해 앞서 가결된 국가 예산 기준 재정적자는 GDP의 4.2% 수준이며, 내년 국가 차입금은 약 606조 동, 원금 상환액은 약 379조 동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vietnamplus.vn 11.18]

1. 발굴 프로젝트 리스트

Thai Duong 1 Wind Power Plant

* 발주처 담당자 정보 및 기타 세부사항 별도 문의

2. 프로젝트 세부정보

발주처	Quang Tri People's Committee
프로젝트	❖ 현장위치 : Quang Trach Commune and Ba Don Ward at Quang Tri Province, Vietnam ❖ 프로젝트 진행상황: Approved Investment Policy ❖ 프로젝트 내용: ➢ Generation capacity: 200 MW ➢ Land use area: 7.88 ha ➢ Water surface use area estimation: ▪ Investigation period: 3882ha ▪ Construction period: 59ha ▪ Operation period: 61.7ha (all turbines are no more than six nautical miles ~ about 11 kilometers) ➢ Project location: ▪ Transformer station and wind turbine area: Quang Trach Commune, Quang Tri Province ▪ National grid connection line area: Quang Trach Commune and Ba Don Ward, Quang Tri Province ▪ The project's operating period: 50 years from the date of the investor approval decision. ❖ 세부일정: ➢ Q4/2025: Approval of Investment policy ➢ Q1-Q2/2026: Bidding for investment selection ➢ Q1/2027: FS report, technical design documents ➢ Q1/2028: Land allocation, land lease water surface lease procedures ➢ 2028-2029: Construction ➢ 2029: COD

▶ [미국 경제통상리포트(US25-40)] IMF 세계경제전망(WEO) 발표 및 주요 시사점

- ◇ IMF, '25년 세계경제 성장률 3.2%, '26년 3.1% 수준의 성장세 전망
- ◇ 관세 충격 완화, AI 투자 확대, 선행수입 등 단기 요인으로 성장세 견조
- ◇ 미-중 무역 갈등 재부상 및 정책 불확실성 등 중기 제약 요인 상존
- ◇ 정책 신뢰 제고·통상질서 복원·통화정책 독립성 유지가 핵심 과제로 제시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 [미국]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 팩트시트(현지시간 11.13) 경제부문 주요 내용

- ◇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발표로(현지시간 11.13)대미 자동차 관세 인하 등 한미 관세협상세 부내용이 공식화되고, 이에 따라 기업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
- ◇ 조선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해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 포함 분야 협력 예정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 [미국 경제통상리포트(US25-41)] 美 연방정부 섯다운 종료 및 예산 합의 관련 주요 동향

- ◇ 트럼프 대통령 서명과 의회의 예산 합의로 43일간의 연방정부 섯다운 종료
- ◇ 통관·심사·인허가 등 행정 기능 정상화 지연으로 산업계의 단기 부담 지속
- ◇ ACA 보조금 미해결과 '26.1.30. 예산 만료가 향후 정책 불확실성으로 부각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미국 경제통상리포트(US25-42)] 美 연방 대법원 IEEPA 관세 재판 동향 및 트럼프 관세 플랜 B 전망

- ◇ 연방 대법원, IEEPA 관세 위헌 여부를 빠르면 연내 판결할 전망
- ◇ 현지에서는 위헌 판정 시, 전 세계 약 1,000억 달러 규모 관세 환급 발생 가능성 대두
- ◇ 환급 시나리오에 대비해 우리 수출기업의 수혜 가능성·대응 전략 점검 필수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VBF 2025 - 디지털 시대, 베트남 정부와 기업이 함께 걷다.. 녹색 전환의 길 위에서



<2025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VBF) 장면>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KOCHAM)는 11월 10일 하노이에서 열린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VBF) 2025’에 참석해 한국 기업을 대표해 베트남 정부에 주요 정책 제안과 기업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번 포럼은 베트남 재무부, 상공회의소(VCCI) 등 주요 정부기관과 외국상공회의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 전환과 디지털 시대의 기업”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서 팜 민 쯔(Pham Minh Chinh) 총리는 포럼의 주제와 기업인들의 열정적인 참여를 높이 평가하며 “단결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협력은 이익을 가져오며, 대화는 신뢰를 공고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함께 듣고 이해하며, 함께 비전과 열망을 공유하고, 함께 행동하여 함께 발전한다”, “이익은 조화롭게, 위험은 함께 나눈다”는 원칙을 언급하며 정부와 기업이 상생하는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총리는 또한 “베트남은 독립 이후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며 경제·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는 당의 영도, 국가의 관리, 기업의 참여, 국민의 지지, 국제사회의 협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응우옌 반 탕(Nguyen Van Thang) 재무부 장관은 “베트남은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두 축으로 새로운 성장 단계에 진입했다”며 “FDI는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외국인직접투자(FDI) 등록액이 전년 대비 15.6% 늘어난 315억 달러를 기록했다”며 “베트남은 글로벌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호시흥(Ho Sy Hung) 베트남상공회의소(VCCI) 회장은 “VBF는 단순한 대화의 장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비전을 공유하는 협력의 무대”라며 “넷 제로(Net Zero) 2050, 디지털경제 전략, 순환경제 로드맵 등은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고태연 코참 회장은 한국 기업을 대표해 베트남 정부에 주요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그는 “FDI 우대정책은 베트남 정부가 국제사회와 투자자에게 약속한 신뢰의 근간”이라며, 국회에서 심의 중인 하이테크법 (첨단기술법) 개정안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용 제품의 품질인증 절차 지연으로 일부 제조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출 전용 제품에 한해 임시 번호판 발급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부가세 환급 지연 문제와 관련해 “중앙 정부의 정책이 지방 세무당국에서 일관되게 집행되지 않아 기업의 자금 흐름이 막히고 있다”며 “전국 단위의 통일 기준과 ‘선환급·후검증’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 코참 고태연 회장 발표 장면>

고 회장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사업 기간 연장과 숙련 인력 부족 문제도 언급하며 “토지 임대 만료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지속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직업훈련 강화, 인력 수급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ESG 경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한국의 청정기술과 베트남의 제조 역량이 결합된다면 베트남은 아시아의 대표적 친환경 제조 허브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베트남 정부와 기업이 녹색·디지털 전환이라는 국가 전략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한 자리였다. 코참은 한국 기업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며, FDI 기업과 정부 간 지속가능한 협력의 가교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다.

<코참 사무국>

베트남 팀코리아협의체 활동 내역은 앞으로도 지면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으로 전파가 필요하신 기관은 코트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시장을 장악한 오리온, 초코파이에서 ESG까지



박세열 대표이사

1. 오리온 베트남 법인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리온 푸드 비나(OFV : ORION FOOD VINA Co., LTD)는 1997년 베트남에 첫 발을 들여놓은 이래, 연평균 성장률 20%에 가까운 빠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에 힘입어 2024년에는 매출 5,000억을 돌파하여 현지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베트남 제과업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식품 기업입니다. 현재 북부 박닌성(2009년)과 남부 빈증성(2006년)에 2개의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북부 3공장(2026년)과 남부 4공장(2029년)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리온의 생산 제품으로는 베트남 제사상에 올라가는 대표제품인 초코파이, 쿠스타스 등이 있으며 감자칩(오스타, 스윙), 쌀과자(안) 등 다양한 파이, 비스킷, 스낵, 껌, 젤리 등을 현지화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오리온의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샌드 크래커(구름 크림)를 런칭하여

인기를 얻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베트남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리온 베트남 법인은 “좋은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공급한다”라는 슬로건으로,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춘 맛과 제품 디자인을 개발하여 베트남 시장에 적합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최적화된 제품을 연구·개발하고 “마케팅”은 소비자의 니즈와 브랜드를 바탕으로 상품화 및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은 열악한 유통 환경을 고려하여 직접 영업 조직을 구축하고 활동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생산”은 원부재료 현지화와 생산 자동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위생 및 품질관리를 통해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추세인 ESG 경영에 맞춰 친환경 사업의 일환인 바이오매스와 태양광 설비 등을 적극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10주년을 맞는 사회공헌 활동인 “고향감자 캠페인”을 통해 베트남 국립 농대에 씨감자 생산시설과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 우수 감자 재배 지역에 매년 4~5대의 농기계를 기증하여 농가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등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2010년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을 보이며, 국제 경제 협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간 무역 장벽이 낮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 정책도 우호적이기 때문에 오리온은 베트남을 동남아시아 및 중동 국가 수출의 중요한 거점으로 삼아 더욱 성장하는 글로벌 제과회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운영 시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오리온 베트남 법인이 직면한 가장 큰 애로사항은 글로벌 제과 업체들과의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시장은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글로벌 타사 제품이 가격을 낮추거나 빠르게 제품을 변화시키는 경우 지속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품질을 보장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오리온은 현지 생산시설 구축과 원가 절감에 집중하였고 베트남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또한 광고와 마케팅 전략을 현지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조정하면서 브랜드 충성도를 높였으며 현지 소비자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박세열 대표이사



< 하노이 공장 전경 사진 >

4. 베트남 진출을 준비중인 한국기업에게 조언해주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베트남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에서 우선, “현지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품의 맛, 디자인, 포장, 광고 방식 등 모든 면에서 베트남 소비자의 특성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변화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둘째, 베트남은 유통망이 복잡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시장이므로 초기에는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여 유통망을 확립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베트남 식품 법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변경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 시작 전에 현지 법규와 세금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호치민 공장 전경 사진 >



VNeID 제도로 인한 비거주자인 법인장 이슈

법무법인JP 베트남사무소 전현우 대표변호사

서설

베트남은 새로운 온라인 신분증 제도인 VNeID라는 것을 도입하였고, 지난 7월 외국인 투자법인 및 외국인 법인장들에 대한 VNeID 집중적인 발급 계도기간을 두어 외국인 또한 베트남 이민국에 방문하여 VNeID를 발급받는 등 여러가지 소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VNeID는 현재 규정상 외국인 투자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큰 문제가 될 소지를 갖고 있으며 특히 법인대표가 베트남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예를 들어 본사 임원 또는 대표가 베트남 법인대표를 겸직하는 경우 매우 불편한 이슈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하고자 합니다.

VNeID 발급 근거

2024년 6월 25일자 시행령 69/2024/ND-CP는 작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시행령에는 전자신분증(VNeID)제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본 VNeID발급의 목적은 VNeID와 같은 전자신분증을 통해 여러가지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VNeID는 발급이 그 의무로 규정된 것은 아니며, “신청할 수 있는”권리에 가깝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항인 제7조 2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베트남에서 영주권 또는 임시 거주증을 발급받은 6세 이상의 외국인은 필요한 경우 1단계 및 2단계 eID 계정을 발급받을 수 있다. 베트남에서 영주권 또는 임시 거주증을 발급받은 6세 미만의 외국인은 필요한 경우 1단계 eID 계정을 발급받을 수 있다.]

위 조항에 따르면 VNeID는 베트남에 영주권 또는 임시거주증을 발급받은 6세 이상의 외국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VNeID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권리”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VNeID 발급은 원칙적으로 강제가 아니며, 발급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불이익 또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VNeID가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VNeID는 사실상 강제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VNeID는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발급되어야 하고, 현재 시행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앞으로 베트남정부는 법인의 세금신고, 사회보험료 납부, 은행계좌개설을 비롯한 은행거래 등에 법인 VNeID 번호를 통해 “손쉽게” 진행하려고 하는 정책방향으로 VNeID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취지는 긍정적이거나 실제로는 더 복잡하고 중대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들이 내재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즉 세무코드만 필요하던 회사 운영과정에 법인의 VNeID 번호가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법인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 FDI의 경우 회사 운영에 수개월이 추가적으로 더 소요될 수 있음

먼저 법인의 VNeID 발급을 위해서는 법인대표자인 개인의 VNeID 발급이 필요합니다. 법인대표자가 베트남 내 국민이라면 당연히 베트남인으로서는 VNeID를 발급해 두었기에 문제가 되지 아니하나, 외국인의 경우 위 VNeID 발급 전제조건인 “영주권 또는 임시거주증을 발급받은 6세 이상의 외국인”이라는 조건이 문제가 됩니다.

즉, 법인대표자의 임시거주증이 발급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법인 대표자가 임시거주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베트남 법인대표 포지션에 대한 국가포털 채용공고, 외국인 근로자 승인신청, 워크퍼밋 또는 워크퍼밋 면제승인, 노동비자발급 그리고 임시거주증 발급까지 약 2개월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나서 법인 대표의 VNeID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일 현재 정부가 계획하는 바와 같이 세무신고, 법인계좌개설, 사회보험료 납부 등 여러가지 행정절차에 법인의 VNeID 발급이 강제된다면 사실상 법인 설립 이후 수개월이 더 지나서야 법인의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특히 법인 설립 이후 베트남 직원을 고용하는 것 조차 사회보험료 납부가 가능한 조건을 충족시킨 뒤에야 고용할 수 있다면 업무를 도와줄 베트남 직원에 대한 급여 조차 비정상적으로 처리해야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이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지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만, 원안대로 그대로 시행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나. 법인 대표에 대한 역외소득 과세 문제

현재 VNeID 발급은 법인대표에 대한 임시거주증 발급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거주증 발급을 위해서는 워크퍼밋 또는 워크퍼밋 면제 승인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베트남 세법은 거주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역외 과세를 하고 있으며, 워크퍼밋 발급은 지역마다 상황마다 차이가 있으나 종종 세무당국이 외국인을 베트남 거주자로 간주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인 대표자에 대한 한국에서의 소득 등 외국에서의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납부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 법인 대표의 베트남 방문 강제

임시거주증 발급을 위해서는 베트남에 방문하여 여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약 1주일 이상의 베트남 방문이 강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사 임원, 대표 등이 베트남 법인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일정 관리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법인 대표자 개인에 대한 VNeID는 Level 2단계로서 사진 촬영 및 지문등록이 요구되는, 베트남 이민국에 직접 방문이 요구됩니다.

현재는 VNeID 발급 및 사용이 모든 법인에 강제되고 있지는 아니하며, VNeID가 발급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의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례에서 은행 및 세무당국에서 법인대표자 및 법인에 대한 VNeID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된 사례들이 발생하였고 앞으로 다른 더 많은 한국 기업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법인 대표가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며, VNeID 발급을 아직 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이에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21탄

동아회계법인 엄진용 회계사

들어가는말

안녕하십니까? 동아회계법인 베트남 대표 엄 진용 회계사입니다. 이번달은 2025년 한해를 마무리지어야 하는 마지막 달입니다. 특히, 모든 기업들은 결산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데요. 결산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잘 준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계 결산이란?

회계 결산이란 기업이 정해진 회계기간(일반적으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동안 발생한 모든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고, 당해연도 기말 기준으로 기업의 재산상태(자산, 부채 및 자본)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회계 장부를 정리하고 마감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1년 동안 열심히 기업을 운영해서 얼마나 벌고 썼는지(즉, 경영성과)와 기말 기준 현재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즉,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작업입니다.

회계 결산의 주요 목적

회계 결산을 하는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영성과 파악: 회계 기간 동안의 당기순손익(이익 또는 손실)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기업의 수익성을 확인합니다.
- 재무상태 확정: 회계 기간 말 현재 기업이 보유한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확정합니다.
- 재무제표 작성: 결산 결과를 바탕으로 외부 이해관계자(투자자, 채권자, 정부 등)에게 기업의 정보를 전달하는 공식 보고서인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를 작성합니다.
- 세금 계산: 확정된 손익을 기준으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등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합니다.

회계 결산의 일반적인 절차

결산은 크게 예비 절차와 본 절차로 나눌 수 있으며, 전산화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업무는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이론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 절차 (결산을 위한 준비 및 조정)

- 시산표 작성 및 확인: 장부 기록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결산 정리 사항 수정: 기간별 귀속을 명확히 하거나(예: 선수/미수, 선급/미지급), 감가상각비 등 장부와 실제의 차이를 조정하는 수정 분개를 수행합니다.
- 정산표 작성: 수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중간표를 만듭니다.

(2) 본 절차 (장부 마감 및 재무제표 작성)

- 수익·비용 계정 마감: 당기순손익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수익과 비용 계정 잔액을 임시 계정인 손익 계정으로 대체하여 마감합니다.
- 손익 계정 마감: 손익 계정의 잔액(순이익 또는 순손실)을 자본금 계정(또는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대체하여 마감합니다.
- 자산·부채·자본 계정 마감 및 이월: 재무상태표 계정(자산, 부채, 자본)은 마감 후 다음 회계 기간으로 잔액을 이월합니다.
- 재무제표 작성: 최종적으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결산과정에서 한국인 관리자에게 중요한 사항

현실적으로 한국인 재경관리자가 상기와 같은 일련의 결산 과정에 처음부터 전부 관여하는 것은 언어상 문제뿐만 아니라, 베트남 회계규정을 완벽하게 숙지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일이긴 하나, 현지인 경리장 또는 경리 직원을 맹목적으로 믿고만 계셔도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을 위한 일련의 프로토콜을 준비하고 이를 제대로 준수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년도에 감사인으로부터 지적 내지는 수정권고를 받은 사항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유사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한국투자법인들이 생산, 제조업에 속한 경우가 많은데요. 통상, 성탄절을 전후로 올해의 생산을 마감하고 각각 재고자산별로 실사를 합니다. 이러한 재고실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실 필요가 있겠고 또한 양품뿐만 아니라 스크랩이나 불량재고, 악성재고, 장기체화재고 등도 함께 처분여부를 결정하여 결산서에 정확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맺음말

독자 여러분 모두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더욱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미국 무역 협정 합의와 일부 농산물 관세 면제

FTA활용지원센터 이여람 관세사

베트남과 미국은 2025년 10월 26~28일 ASEAN 정상회의를 계기로, 팜민찐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여 상호적이고 공정하며 균형 잡힌 무역 협정(Framework for an Agreement on Reciprocal, Fair, and Balanced Trade) 공동성명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양국 간 경제 협력과 무역 확대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됩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 정부는 최근 식품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일부 수입 식품에 대한 상호 관세를 면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을 조정한 것으로, 미국 무역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베트남의 후추, 향신료, 커피, 과일 등 주요 수출 품목이 포함되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수출 확대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1. 미국-베트남 무역 협정 프레임워크(2025년 10월 26~28일)

양국은 ASEAN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역 협정 프레임워크에 합의했습니다.

- 베트남, 미국 공산품 및 농산물 수출품 대부분에 대해 특혜적 시장 접근권 제공
- 미국,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EO 14257)에 따라 베트남산 원산지 물품 20% 상호관세율 유지
- 2025년 9월 5일자 행정명령(EO 14346) 부속서 III에 명시된 일부 품목 0% 상호관세율 적용 예정
- 양국, 비관세장벽이 우선 교역 분야에 미치는 영향 해결 위해 협력
- 베트남, 다음 비관세장벽 해소 합의
 - 미국 자동차 안전·배출 기준 충족 차량 수입 허용
 - 미국 의료기기 수입 허가 제도 개선
 - 미국 의약품 규제 요건 및 승인 절차 간소화
 -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 지식재산권 조약 의무 완전 이행
 -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 절차 관련 미국 우려 해소
- 양국, 베트남 내 미국 농산물 수입 장벽 해소 및 방지 위해 협력(미국 규제기관 인증서 유효성 인정, 규제 감독체계 수용 포함)
- 양국, 디지털 무역·서비스·투자 분야 약속 최종 확정 예정
-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 통관·무역 원활화, 우수 규제 관행, 국영기업 왜곡 행태 협의 예정
- 양국, 공급망 회복력 강화, 관세 회피 방지 및 수출 통제 협력 심화
- 미국과 베트남, 농업·항공우주·에너지 분야 최근 체결 상업 거래 주목
- 베트남항공(Vietnam Airlines), 보잉(Boeing)으로부터 항공기 50대, 총 80억 달러 구매 합의
- 베트남 기업, 미국 기업과 총 29억 달러 이상 규모 미국 농산물 구매 MOU 20건 체결

미국과 베트남은 수주 내 공정하고 균형 잡힌 상호 무역협정을 최종 확정하고, 서명을 마친 후 발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 미국, 일부 식품 상호관세 면제 및 베트남 수출 전망

(1) 일부 식품 상호관세 면제 조치 (2025년 11월 14일 행정명령 서명)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4월 발표된 상호관세 적용 범위를 개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커피, 차, 후추, 향신료, 열대 과일 및 주스, 코코아, 바나나, 감귤류, 토마토 등 일부 농산물이 상호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며, 2025년 11월 13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강력한 방어적 기조에서 국내 공급 안정과 소비자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유연한 접근으로 전환했음을 보여주며, 특히 후추, 커피, 채소 등 농산물 강점을 가진 베트남 기업들에게는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회복과 확대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면제 조치는 양국 무역 협상이 일정 부분 진전을 이룬 뒤 시행된 것이며, 미국이 단순한 관세 부과에서 벗어나 시장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고려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2) 업계 평가 및 비관세 장벽

베트남 후추·향신료 협회(VPSA)는 이번 면제 조치를 긍정적 신호로 평가하며, 2025년 4월 이후 상호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어 온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면세로 인해 비용 부담이 일부 완화되고, 미국 시장 경쟁력 확보와 점유율 회복에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다만, VPSA는 상호관세 면제가 모든 규제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전히 SPS 기준(위생·검역), 이력 추적, 잔류물 표시, 식품 안전 등 기술적 장벽이 존재하며, 기업들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미국 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제 조치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3) 후추, 커피, 과일·채소 수출 전망

- 후추: 올해 1~10월 베트남 후추 수출은 206,427톤·13억 달러로, 생산량은 소폭 감소했지만 수출액은 증가했습니다. 미국은 44,262톤을 수입하며 최대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호관세 면제 조치는 미국 수출 회복과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커피: VICOFA 응우옌 남 하이 회장은 국제 커피 가격 변동에도 중장기적 수출 추세는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브라질 무역 갈등으로 한때 미국 수출이 베트남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이번 면세 조치로 가공 커피 수출 비중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미국 시장은 라벨링, 화학 잔류물, 테스트 기준이 여전히 엄격합니다.
- 과일·채소: 비나 T&T 그룹은 면세 조치를 미국 시장 수출 확대 촉매제로 평가했습니다. 미국 파트너사들이 공급 협상을 재개하고 유통 쿼터 확대를 제안하고 있으나, 경쟁력 확보는 기업들의 표준 준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베트남 과일·채소 협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수출액은 70억 9천만 달러, 전년 대비 15.1% 증가했으며, 미국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이번 면세 조치는 2025년 80~85억 달러 수출 목표 달성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결론

이번 무역 협정과 미국의 일부 농산물 관세 면제는 베트남 기업들에게 미국 시장 점유율 회복과 수출 확대의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회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품질 관리와 국제 기준 준수 역량이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장기적인 시장 확대 전략과 함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출처: 백악관, 현지언론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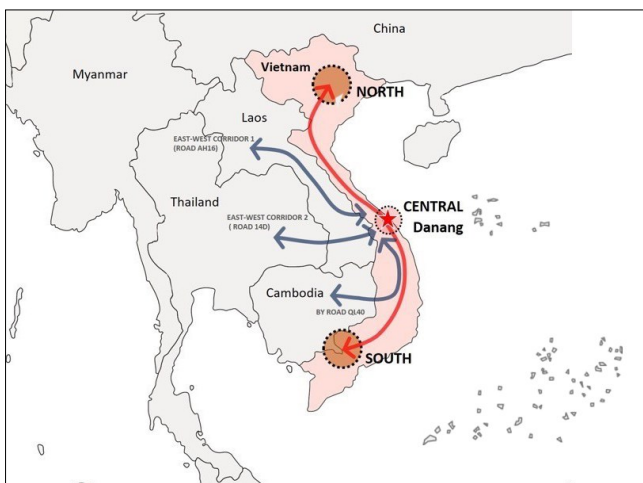
베트남 중부 유망 투자지역 소개 - 다낭시

기본정보

구분	내용
면적-인구	- 면적 : 11,859.59km² - 인구 : 3,065,628 명 - 도시 거주 비율 : 59.9% (행정구역 통합 후 추정)
지정학적 위치	북쪽은 후에(Hue) 시와 접하고, 남쪽은 꽝응아이(Quang Ngai)성과 접하며, 서쪽은 라오스(라오인민민주공화국), 동쪽은 동해(East Sea)와 접하고 있음. 다낭시는 6개의 중앙 직할시 중 면적이 가장 큰 지역임. 다낭시는 23개의 동(ward), 70개의 읍(commune/township), 그리고 1개의 호앙사(Hoang Sa) 특별구를 포함하여 총 94개의 기초 행정 단위를 보유하고 있음. 정치·행정 중심지는 다낭시 하이쩌우(Hai Chau)동에 위치해 있음.
교통 시스템	- 다낭시는 베트남 최고 수준의 통합적이고 다양한 물류/교통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 그중 두 개의 공항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나는 중부 연안 지역의 핵심 관문인 다낭 국제공항이고, 다른 하나는 남부권 물류·산업 허브인 추라이(Chu Lai) 공항임. - 다낭은 또한 띠엔사(Tien Sa)항, 리엔찌에우(Lien Chieu)항, 추라이(Chu Lai)항, 끼하(Ky Ha)항 등 주요 항만을 보유하여 북중부와 남중부를 연결하는 물류 축을 형성하며, '동남아시아 동서경제회랑'의 출발점 역할을 하고 있음. - 철도, 국도 1A,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 연안도로 등이 구축되어 도시-산업-농촌 지역을 신속하게 연결함. 이 가운데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는 이동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고 중부 주요 경제권 간 교류 및 교역을 촉진하는 핵심 교통축임.
GRDP 성장률 / 1인당	- GRDP 성장률 : 9.43% (2025년 상반기) 1인당 GRDP : US 4,719달러/년 (* 2023년 대비 4.91% 증가) ※ 행정구역 통합 이전 2024년 다낭시 단독 데이터임 (꽝남성 미포함)
경제 규모 산업별 성장률	- 총수출액 : 21.4억 USD, 총수입액 : 16.59억 USD ('24년 기준) ※ 행정구역 통합 이전 2024년 다낭시 단독 데이터임 (꽝남성 미포함) - 산업별 성장률 : 제조업 및 건설업(13.19%), 서비스업(10.37%), 농림어업(3.44%)
경제구조 ('25년 상반기)	- 제조업 및 건설업 : 24.6% - 서비스업 : 55.68% - 농림어업 : 7.68%
인적자원 (행정구역 통합 후 추정)	- 노동 연령 인구 비율 : 49% - 노동 연령 인구 중 직업 교육을 받은 비율 : 47% - 자격증 소지 노동자 비율 : 38%
최저임금	제2구역 - 최소 441만 동/월 : 하이쩌우(Hai Chau), 화끄엉(Hoa Cuong), 탄케(Thanh Khe), 안케(An Khe), 안하이(An Hai), 설편(Son Tra), 응우하인선(Ngu Hanh Son), 화칸(Hoa Khanh), 하이반(Hai Van), 리엔찌에우, 캄레(Cam Le), 화쑤언(Hoa Xuan),

구분	내용
최저임금	▶ 팜끼(Tam Ky), 광푸(Quang Phu), 흐엉짜(Huong Tra), 반타익(Ban Thach), 호이안(Hoi An), 호이안동(Hoi An Dong), 호이안테이(Hoi An Tay) 등; 화방(Hoa Vang), 화띠엔(Hoa Tien), 바나(Ba Na), 판히엵(Tan Hiep) 읍; 및 호앙사특별구. ▶ 제3구역 – 최소 386만 동/월: 디엔반(Dien Ban), 디엔반동(Dien Ban Dong), 안탕(An Thang), 디엔반박(Dien Ban Bac) 등; 누이탄(Nui Thanh), 팜미(Tam My), 팜안(Tam Anh), 득푸(Duc Phu), 팜쑤언(Tam Xuan), 팜하이(Tam Hai), 떼이호(Tay Ho), 찌엔단(Chien Dan), 푸닌(Phu Ninh), 탕빈(Thang Binh), 탕안(Thang An), 탕쯔영(Thang Truong), 탕띠엔(Thang Dien), 탕푸(Thang Phu), 동쯔영(Dong Duong), 꾸에선쭙(Que Son Trung), 꾸에선(Que Son), 쑤언푸(Xuan Phu), 농선(Nong Son), 꾸에프억(Que Phuoc), 두이응이아(Duy Nghia), 남프억(Nam Phuoc), 두이쑤이엔(Duy Xuyen), 투본(Thu Bon), 디엔반테이(Dien Ban Tay), 꺼노이(Go Noi), 다이록(Dai Loc), 하냐(Ha Nha), 트엉득(Thuong Duc), 부자(Vu Gia), 푸투언(Phu Thuan) 읍. ▶ 제4구역 – 최소 345만 동/월: 기타 통과 읍.
외국인 투자 (‘24.12월 기준)	▶ 총 외국인투자: 1,225건 FDI 프로젝트에 US 108.6억 달러. ▶ 한국 투자: 396건 프로젝트에 US 23.1억 달러. ▶ 한국 투자는 다낭시에 투자한 45개국 및 지역 중 투자금 기준 2위, 프로젝트 수 기준 1위를 차지.

투자환경



다낭시의 위치 및 시내 지도

➤ 교통시스템

(도로)

-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가 세로축·가로축 그리고 연결도로망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주요 세로축 도로 :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 국도 1A, 쯔엉선동(Truong Son Dong) 도로, 호치민 도로, 연 안 도로.

주요 가로축 도로 : 국도 14G, 14B, 14D, 14H, 14E, 40B

- 교통 인프라 투자 및 개발은 다음과 같이 5개의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됨.

도로축을 통한 다낭시와 중부 경제 중심권 내 각 성·시 간의 연계 강화.

다낭시 북부와 남부 간 연결성 향상.

다낭시가 교통운송, 교역 및 국제 교류의 주요 거점으로 부상.

다낭의 베트남 서부 지역, 남부 라오스, 캄보디아 동북부 및 태국을 동해로 연결하는 관문 기능 강화.

싱가포르, 중국,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과 연계되는 역내 경제권 중심지로서의 입지 강화.

(항공)

- 다낭 국제공항

베트남에서 가장 크고 현대적인 3대 공항 중 하나로, 국제선 운항 횟수는 주당 768회 운항함. 2030년까지 연간 2,500만 명의 여객과 10만 톤의 화물 처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확장·개선 투자가 진행되고 있음. 다낭 국제공항 여객 터미널은 베트남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스카이트랙스(Skytrax) 기준 5성급 평가를 받은 터미널임. 다낭 국제공항은 2024년 스카이트랙스가 선정한 세계 공항 순위 TOP 100에 포함되었음.

- 추라이 공항

추라이 경제개방특구 내에 위치한 중부지역의 주요 공항으로, 다낭시의 주요 산업단지와 인접해 있음. 공항 면적은 2,000ha 이상임. 현재 신규 여객터미널 건설 계획이 추진 중으로 2050년까지 연간 1,000만~3,000만 명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음.

(수로)

- 다낭항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베트남 중부지역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베트남의 주요 상업항 중 하나임. 2024년 기준 화물처리량은 14,031,083톤에 달함.

- 끼하(Ky Ha)항

국제항만 등급의 항구로 현재 20,000DWT급 선박을 수용하고 있으며, 향후 50,000DWT급 선박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 투자가 진행될 예정임.

[특구 지역]

• 다낭 하이테크파크

총계획면적이 1,128.4ha이며, 이 중 6개 기능구역의 면적은 612.27ha로 베트남 중부지역에서 유일한 국가급 하이테크파크. 베트남의 3대 다기능 국가급 하이테크파크 중 하나로 현대적 인프라 시스템과 우수한 투자 우대 정책 보유.

• 다낭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베트남에서 최초로 허가된 자유무역지대로 총 규모는 약 1,881ha에 달함. 생산·물류, 상업·서비스, 디지털 기술·정보기술·혁신 분야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7개 비연속 구역 포함.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수출 중심지이며, 리엔찌에우 항 및 다낭 국제공항과 밀접하게 연계된 핵심 물류 및 화물 환적 허브. 다낭을 서비스 중심이자 동서 경제회랑, 아시아-태평양 및 글로벌 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다낭 국제금융센터와 함께 발전 중.

• 추라이 경제개방특구

총 자연면적 27,000ha의 접근성이 뛰어난 위치, 다분야 복합 경제구역

• 남장(Nam Giang) 국경관문경제구역

총 규모 31,000ha의 경제구역으로 다낭시를 남라오스, 캄보디아 동북부, 태국과 연결하는 국경관문 경제구역임

현재 다낭시에는 16개 산업단지가 운영 중이며, 1개 산업단지가 건설 중에 있음. 전략적 입지에 위치한 9개 산업단지가 선정되어, 기반 인프라 구축과 투자 유치절차를 진행 중.

➤ 전기·급수·통신 인프라

[전기]

다낭시는 다수의 수력·화력 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투자유치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음.

[급수]

산업단지 및 주요 대형 산업프로젝트의 상수도 공급률은 100%, 산업클러스터의 상수도 공급률은 약 70% 수준임.

[통신]

다낭은 국가의 현대적 통신허브로, 국제연결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통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 전국 최초로 도시 전역에 약 430개 접속지점을 갖춘 Da Nang Wifi 무선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기관 및 개인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신환경을 제공함. 또한, 다낭은 국가 광전송망의 3대 핵심 종단점 중 하나이며, 국제 연결 지점으로 APG·SMW3 해저 광케이블 2개를 직접 보유하고 있음.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는 국제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도시 광대역망(MAN, 300km), 데이터센터(170TB), 전역 와이파이 시스템, 콜센터 등이 포함됨.

(폐수·폐기물 처리 인프라)

- 산업폐수의 경우, 다낭시 내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집중 폐수처리 시스템과 고형 폐기물 수거·처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산업단지 외부 프로젝트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문 처리 기관이 폐기물을 수거·처리하고 있음.

➤ 관광 및 천연자원

- 다낭시는 호이안 구시가지와 미썬(My Son) 성지 등 세계문화유산 2곳과 세계생물권보전지역인 꾸라오참(Cu Lao Cham)을 동시에 보유한 베트남 유일의 도시로, 생태·문화·관광이 결합된 '황금 삼각지대'를 형성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디엔하이(Dien Hai) 성곽, '응우하인선'산 등 국가 특별 유적 2곳, 국가 무형 문화유산 7건, 국가 보물 6건, 국가급 유적 72곳, 시급 유적 351곳을 비롯해 수백 개의 전통 민속축제와 다양한 가치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음. 대표적 무형유산으로는 뚜엥(Tuong), 바이쪼이(bai choi) 가창, 바짜오(ba trao) 가창, 전통 음식문화, 민간지식, 전통공예마을 등이 있음.
- 다낭은 또한 미케(My Khe), 논느억(Non Nuoc), 끄어다이(Cua Dai), 안방(An Bang), 하미(Ha My), 팜타인(Tam Thanh) 등 아름다운 해변을 비롯해, 바나힐(Ba Na Hills), 다낭 다운타운, 다낭 미카즈키 리조트 & 스파(Da Nang Mikazuki Japanese Resorts & Spa), 선짜(Son Tra) 반도, 바이마우(Bay Mau) 코코넛 숲, 빈펄(Vinpearl) 남호이안 리조트 & 골프(Vinpearl Resort & Golf Nam Hoi An) 등 풍부한 관광 명소와 고급 리조트·호텔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관광 선택지를 제공함. 세계생물권보전지역이자 '베트남 중부 동해의 보석'인 '꾸라오참'섬 인근에는 다낭시에 속하는 황사특별구가 위치해 있으며, 이는 베트남의 신성한 해양·영토 주권을 상징함. 또한 다낭시는 응옥린삼(Sam Ngoc Linh), 짜미 계피(Que Tra My), 파극천, 당삼(Dang Sam) 등 귀중한 약용 식물을 포함해 다양한 산림 자원을 보유함. 이 중 응옥린삼은 국가 주요 상품으로 지정되어 있음. 해양 자원 또한 풍부하여 해삼, 전복, 랍스터 등 다양한 고급 해산물이 생산됨.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경제 발전 현황 및 방향

2045년 비전 : 다낭시는 생태·스마트 도시이자, 자유무역 중심지, 국제 금융 중심지, 산업·물류·혁신창업 중심 도시, 또는 아시아 수준의 관광·정주 도시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향후 다낭시는 첨단·현대·지속가능 기술을 적용하고 생산·에너지·물류·혁신을 집약한 생태 산업단지 개발에 집중.

산업단지, 고기술단지, 집중형 IT단지, 위성 산업단지 간 연계 클러스터 형성 추진으로 생산 밸류체인 창출, 기업 간 상호 협력 기반 강화 및 생산 효율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 도모.토지 이용 효율 제고를 위해 다낭시 기존 산업단지에 대해 재조정 및 최적화를 추진함.

▶ 우대정책

항목	투자지역	법인세/수입세/토지세	토지임대료
다낭 하이테크 파크	다낭 하이테크파크	법인세: ✓ 15년간 인센티브 10% 수혜 가능, 최초 매출이 발생한 연도부터 지속적으로 적용. ✓ 4년간 법인세 전액 면제, 이어 9년간 납부세액의 50% 감면 수혜 가능, 최초 과세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지속적으로 적용. ✓ 총 투자규모 3조 동 이상인 프로젝트의 경우 30년간 10% 인센티브 수혜 가능. 하노이 화락(Hoa Lac) 첨단기술단지는 투자규모 4조 동 이상, 호치민 첨단기술단지는 6조 동 이상이어야 30년간 10% 우대세율을 받을 수 있어 다낭시는 다른 지역 대비 유리한 조건 제공.	✓ 임대료 수준: 도로 위치와 프로젝트 유형에 따라 연 1㎡당 0.61~1.38 USD. ✓ 건설기간 면제: 기초 건설 기간 동안 토지 임대료 면제 혜택 수혜 가능. 다만 토지 임대 결정일로부터 최대 3년 한함. ✓ 프로젝트 유형별 추가 면제: 기초 건설기간 면제 종료 후, 프로젝트 유형에 따라 15년, 19년 또는 임대 기간 전체 면제 가능. ✓ 특별 우대: 2020년 12월 30일 자 총리 결정 제38/2020/QĐ-TTg호에 따라 첨단 기술 목록에 해당하는 기술 및 제품을 생산하는 프로젝트와 첨단 기술 제품 개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수행 기간 동안 토지 임대료 전액 면제 혜택 수혜 가능.
산업단지	투언옌 (Thuan Yen) 산업단지	법인세: ✓ 2년간 면제 ✓ 이후 4년간 납부세액의 50% 감면 수입세: ✓ 고정자산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 기초 건설기간 면제: 토지 배정일부터 최대 3년간 임대료 면제 ✓ 일반 우대 투자 분야 프로젝트: 3년간 임대료 우대 ✓ 특별 우대 투자 분야 프로젝트: 11년간 임대료 우대
	동퀘선(Dong Que Son) 산업단지 디엔남 – 디엔응옥(Dien Nam – Dien Ngoc) 산업단지	법인세: ✓ 2년간 면제 ✓ 이후 4년간 납부세액의 50% 감면 수입세: ✓ 고정자산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경제특구	추라이경제개방특구(땀히엵(Tam Hiep), 땀탕 2(Tam Thang 2) 산업단지, 추라이-쯔엥하이 자동차기계 산업단지; 추라이-쯔엥하이 항만 및 물류 산업단지; 땀안(Tam Anh)-한국 산업단지; 땀탕 산업단지; 북추라이(Bac Chu Lai) 산업단지	법인세: ✓ 15년간 법인세 10% 적용 ✓ 최초 과세소득 발생일부터 4년간 전액 면제, 이후 9년간 납부세액의 50% 감면 수입세: ✓ 고정자산 수입 관세 면제 ✓ 국내 미생산 원자재, 자재, 부품 수입 시 5년간 관세 면제, 생산용 목적에 한함	✓ 토지 사용 기간: 경제특구 내 생산·영업용 토지 최대 70년 보장 ✓ 임대료: • 프로젝트 수행 기간 동안 전액 면제 가능 • 일부 분야, 지역, 특별 우대 투자 프로젝트는 면제 또는 감면 가능 • 기반시설이 완비된 산업단지 토지는 경쟁력 있는 임대료 단가 적용
	자유무역지대	전략적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 연구개발(R&D) 비용 세제 혜택 전략적 투자자는 R&D 활동에 실제 소요된 비용의 150%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과세소득 산정 시 공제 가능. 실제 R&D 비용은 회계 관련 법규에 따라 산정 ✓ 통관 및 세무 우대 전략적 투자자가 다낭시에서 수행하는 투자 프로젝트의 수출입 화물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통관 및 세무 우대 절차 적용. 다만, 수출입 금액 기준 조건은 제외	
국제금융 센터	다낭 국제금융센터	법인세 ✓ 30년간 법인세 우대세율 10% 적용 ✓ 최초 4년간 면제, 이후 9년간 납부세액의 50% 감면 ✓ 고급 인력 개인소득세 면제	✓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토지 회수 및 배정 정책 적용, 토지 사용 기간 최대 70년

국제금융 센터	다낭 국제금융센터	✓ 다양한 금융서비스 및 거래에 대한 세제 우대; 이는 싱가포르(17%), 홍콩(16.5%) 등 다른 금융센터 대비 장기적·안정적 높은 수준의 우대임 ✓ 외환 및 은행업 자유화: 통제된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자유화 및 개방 ✓ 국제금융센터 회원사는 자금 조달 및 외화 사용 자유를 가지며, 센터 내외 거래가 가능함. ✓ 정보 보고 규정 준수만 요구, 국가 외채로 산정되지 않음 ✓ 절차 간소화, 국제 기준에 맞춘 신속 승인을 통한 외국계 은행 지점 또는 자회사 설립 허용 ✓ 투자펀드, P2P 대출 핀테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단계적 개방 허용	✓ 국제금융센터 투자 절차 특례: • 투자 기술 심사 시 등록 및 사후 점검 방식 적용 • 환경 등록 절차 적용 • 건축 관련 절차 적용
------------	-----------	---	---

외국인 투자 현황

➤ 외국인 투자

2025년 6월까지 외국인투자는 1,225건으로, 총투자액은 US 108.6억 달러임.

순번	사업명	내용	투자국가	총 투자액 (USD)
1	남호이안 개발 유한 책임 회사	남호이안 리조트 프로젝트	싱가포르	40억
2	효성 광남 유한회사	타이어 코드용 원단 제조 공장	한국	4.1억
3	Silvers Shores 특별 국제 관광·오락단지	600실 규모의 5성급 호텔 단지 건설 및 운영	케이맨 제도	3.437억
4	하이네켄 베트남 맥주 공장 유한회사 - 다낭 2 지점	맥주 및 각종 음료 생산	싱가포르	1.975억
5	TCIE 베트남 유한회사	12~51인승 버스 생산 및 조립	말레이시아	1.793억

6	Sunshine 항공우주 부품 제조 공장	항공우주 부품 생산	싱가포르	1.7억
7	Viet Hoa 전자 부품 제조 공장	전자 부품 생산	일본	1.69억
8	미카즈키 스파 & 호텔 리조트	관광시설 및 부동산 사업	일본	1.675억
9	미국-태평양 대학교	사립대학교	미국	1.5억
10	Foxlink 다낭 전자 공장	전자 부품 생산	대만	1.35억

▶ 한국 투자

2024년 12월 기준으로 한국 투자자들은 396개 프로젝트에 총투자액 US 23.1억 달러 투자.

순번	사업명	투자자	위치 (산업단지)	총 투자액 (USD)
1	타이어 코드용 원단 제조 공장	효성 광남 유한회사	пам탕 산업단지	4.1억
2	ICT VINA III 공장	ICT VINA 유한회사	다낭 하이테크파크	1.17억
3	SGI 자석프로젝트	SGI VINA 유한회사	북추라이 산업단지	1.1억
4	고층 아파트, 오피스 빌딩, 상업 공간 등 종합 복합단지 투자·건설·사업 프로젝트	한국 투자개발 유한회사	산업단지 외부	9,000만
5	방직·직조·염색 및 봉제용 부자재 생산 공장 건설 프로젝트	팬코 팜탕(Panko Tam Thang) 1인 유한회사	пам탕 산업단지	7,000만
6	ICT VINA II 의류기기 제조 공장	ICT VINA 유한회사	다낭 하이테크파크	6,000만
7	에어백용 원단 생산 공장	효성 광남 유한회사	пам탕 산업단지	5,910만
8	CTR VINA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	CTR Vina 유한회사	пам탕 산업단지	2,720만
9	의류·방직·원단·직조·염색 공장 건설 투자 프로젝트	던산비나 1인 유한회사	пам탕 산업단지	2,350만
10	섬유 생산 공장	DH Textile 1인 유한회사	пам탕 산업단지	2,230만

산업단지 현황

▶ 주요 산업단지 정보

순번	산업단지명	설립연 도	면적 (ha)	주요 정보	인프라 개발자/ 투자자 (회사명 및 웹사이트)
1	화칸	1996	394	프로젝트 231개 (FDI 64개)	다낭 산업단지 인프라 개발 및 운영 회사 https://daizico.vn/

2	수산 서비스 (Dich vu thuy san)	2001	50.63	프로젝트 55개 (FDI 6개)	다낭 산업단지 인프라 개발 및 운영 회사 https://daizico.vn/
3	화감 (Hoa Cam)	2003	149.84	프로젝트 82개 (FDI 8개)	화감 산업단지 투자 주식회사 hoacamizi.com.vn
4	화칸 확장	2004	132.6	프로젝트 43개 (FDI 23개)	사이공-다낭 투자 주식회사 https://www.dananginvest.com
5	리엔찌에우	1998	289.35	중공업 분야의 프로젝트 집중, 프로젝트 37개 (FDI 6개, 한국 투자 프로젝트 2개)	사이공-다낭 투자 주식회사 https://www.dananginvest.com
6	다낭	1993	50.1	프로젝트 44개 (FDI 9개)	Massda Land 유한회사
7	투언옌	2009	148.43	식품가공, 전자산업, 경공업, 저오염 산업 프로젝트 19개 (FDI 4개)	탕롱(Thang Long) 수출입 투자 주식회사
8	동웨선	2010	232.57	프로젝트 18개 (FDI 4개)	안틴-꽝남(An Thinh – Quang Nam) 주식회사
9	디엔남 - 디엔응옥	1996	345	프로젝트 82개 (FDI 49개)	꽝남-다낭 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 주식회사 (Uid Company) uidcompany.com.vn

➤ 경제특구

추라이 경제개발특구



추라이 경제개발특구의 총 면적은 27,040헥타르로, 꽝푸동, 반타익동 일부, 또는 누이탄, 팜안, 팜쑤언, 탕쯔엥, 탕디엔, 탕안 읍을 포함함.

추라이 경제개발특구 계획 방향 :

- 다분야·다산업을 아우르는 해양 경제구.
- 중부 경제중심권의 핵심 개발 및 주요 성장 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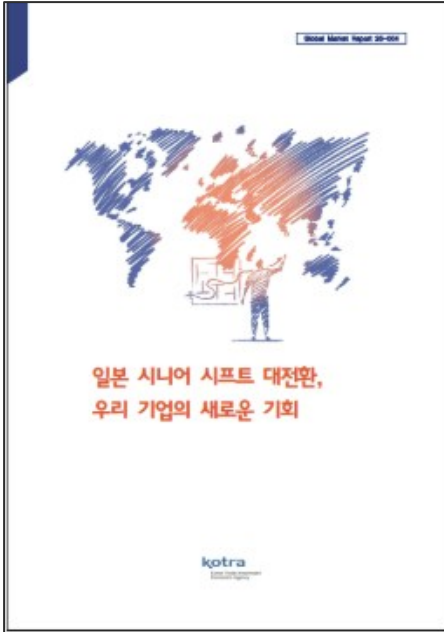
- 도시 개발 지역.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 항공 산업의 중심지, 가스·전력·석유화학 제품 중심지.
- 섬유·의류 산업 및 관련 부품 산업 중심지, 첨단 기술과 높은 지식 집약도가 요구 되는 산업, 유기농 농업 및 첨단 기술 적용 농업 생산 중심지.
- 추라이 공항과 추라이-끼하 항만 시스템과 연계한 관광·서비스 중심지.
- 베트남 페이응우옌, 남라오스, 동북 캄보디아 및 태국의 동해로 나가는 관문 역할

➤ 투자 유망분야

- 다낭 하이테크파크(6개 우선 투자 분야)
 - ✓ 정보기술(IT), 통신, 소프트웨어
 - ✓ 농업, 수산업, 의료를 위한 생명공학
 - ✓ 마이크로 전자, 정밀 기계, 메카트로닉스, 광전자, 자동화 기술
 - ✓ 신소재, 나노 기술, 신재생 에너지 기술
 - ✓ 환경 기술 및 석유화학 관련 기술
- 자유무역지대 : 생산, 물류, 상업 및 서비스, 디지털 산업, IT, 혁신 창업 등
- 금융센터: 금융기관, 국제은행 녹색금융, 중소기업 지원 상업금융 활동, 비거주자 대상 오프쇼어 금융 서비스, 자유무역구, 첨단기술단지, 경제개방특구, 산업단지 등에서의 국경 간 상거래, 핀테크 기술 혁신 및 통제된 실험(sandbox) 운영: 디지털 자산, 가상화폐, 디지털 결제, 디지털 송금 등
- 자동차 생산·조립, 기계·전기·전자 제품, 지원 산업, 첨단 산업
- 약재 산업, 실리카 기술, 전력·가스 산업
- 다중 운송의 물류 서비스 센터; 항만·공항 연계 비관세 구역
- 농림수산물 가공, 약용·광물·건축자재 산업
- 부동산 및 도시 개발 : 대규모 주거·도시 개발 프로젝트; 스마트 시티, 친환경, 대학 연계형 도시; 산업단지 및 경제구역과 연계된 현대적 도시 개발
- 관광 및 레저 : 문화·역사 유산 공간 기반 관광, 문화 연구형 체험 관광; 고급 리조트 및 골프장, 올림픽 표준 스포츠 시설; 커뮤니티 관광(OCOP 제품 연계), 의료·웰니스 관광; 중부·서부 고원 농축산물 유통센터, 쇼핑몰, 슈퍼마켓, 도매시장
- 유기농 농업 및 밸류체인 연계 프로젝트 유치 ;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해 산림 하층에서 재배되는 약용 식물과 응옥린삼을 핵심 제품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

투자 유치기관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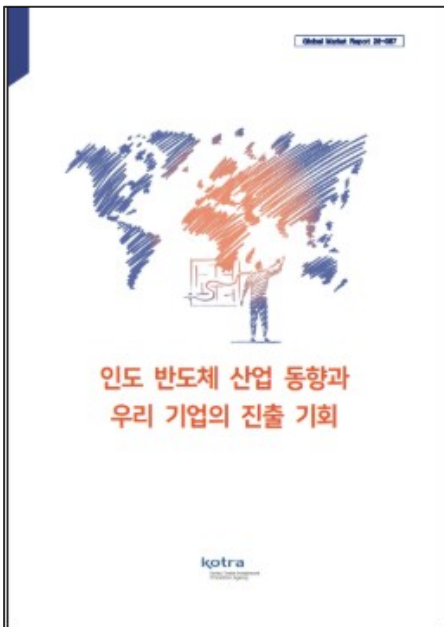
기관명	담당자/직위	연락처/이메일
다낭 투자촉진지원 센터	Ms. Nguyễn Thị Tuyết Mai: 부센터장	Tel: (0236) 3886 243 Email: ipa@danang.gov.vn Website: investdanang.gov.vn



일본 시니어시프트 대전환, 우리 기업의 새로운 기회

[클릭시 해당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1. 일본의 시니어 시프트 대전환
2. 일본 정부의 초고령사회 주요 대응 정책
3. 일본 액티브 시니어의 새로운 트렌드와 주요 사례
4. 우리 기업의 기회와 진출전략



인도 반도체 산업 동향과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

[클릭시 해당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1. 조사 배경
2. 인도 반도체 산업 현황 및 전망
3. 정부 육성 정책
4. 국제 협력동향
5.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

베트남 호치민 하드웨어, 수동공구 전시회

전시회명	베트남 호치민 하드웨어, 수동공구 전시회
개요	▪ 베트남 호치민 하드웨어 전시회는 베트남 정부 산하의 전시전문 기관 Vinexad가 개최하는 전시회 ▪ 베트남 기계산업협회와 호치민 전자기계 산업 협회의 후원, 베트남에서 유일하게 개최되는 하드웨어 & 수동공구 전문 전시회로, 건설관련 공구 및 장비, 안전기기 및 보안 관련 등 다양한 '공구' 관련 제품들이 출품됨 ▪ 1. 베트남 유일의 하드웨어 & 수동공구 전문 전시회 ▪ 2. 베트남 남부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소비재 전시회인 'Vietnam Expo in HCM City'와 공동 개최 ▪ 3. 주최사의 43년간의 전시회 개최 경험을 통해 효과적인 B2B 채널을 제공 ▪ 4. 관련 산업의 세미나를 진행하여 최신 동향과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음"
개최기간	2025.12.04 - 2025.12.06
개최장소	Saigon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
개최규모	3600sqm(m²)
웹사이트	http://hardwaretools.com.vn/en
산업분야	기계&장비
전시품목	수동 공구, 전동 공구, 기동 공구, 기기연마재, 각종 부속 용품 등
주최자	VINEXAD +84-243-825-5546 / daoha@vinexad.com.vn (Dao Thu Ha)



對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1988. 01. 01~2025. 10. 31 기준 누계		2025. 01. 01 ~ 10. 31		
국가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 국	10,329	94,315.20	376	627.01	4,425.68
싱가포르	4,316	88,933.65	441	3,763.97	7,520.92
일 본	5,681	78,871.98	246	1,167.31	3,099.39
대 만	3,393	42,209.01	154	901.22	1,600.64
홍 콩	3,157	40,916.50	396	1,378.65	2,586.65
중 국	6,069	34,247.19	1,008	3,214.53	3,936.00
버진아일랜드(영)	943	24,428.79	28	326.98	857.52
네덜란드	466	14,937.95	20	70.55	175.33
태국	784	15,220.86	31	87.61	953.98
말레이시아	784	14,852.98	33	236.08	2,063.15
미국	1,501	12,284.07	108	450.16	610.55
기 타	7,378	64,649.70	480	1,848.57	3,689.33
전체 합계	44,801	525,867.88	3,321	14,072.64	31,519.14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對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2025. 10. 31 기준 누계		2025. 1. 1 ~ 10.31		
연번	산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8,868	323,571.20	1,156	7,972.29	18,227.01
2	부동산 경영	1,302	78,643.06	92	2,747.35	5,941.61
3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204	42,636.24	8	735.69	985.66
4	호텔, 외식서비스	1,071	13,373.63	78	388.85	899.77
5	건설	9,071	12,689.26	1,142	428.01	1,374.24
6	도소매, 유지보수	1,874	10,531.31	45	14.68	205
7	물류 운수	1,300	7,370.35	113	259.23	342.76
8	과학기술, 전문 활동	5,101	6,343.14	376	245.82	1,614.19
9	정보통신	3,239	5,214.76	178	35.83	100.48
10	채광	108	4,970.74	1	15	101.65
11	교육, 양성	716	4,798.72	30	90.74	207.86
12	농,임,수산	537	3,853.31	5	26.12	46.38
13	예술 오락	87	3,710.09	6	1,075.04	938.23
14	용수 공급, 폐기물 처리	154	3,170.05	4	0.91	2.24
15	의료와 사회복지	155	1,838.58	1	2	159.48
16	행정, 지원 서비스	739	1,269.90	75	28.27	172.62
17	금융, 은행, 보험	166	939.58	8	4.16	36.79
18	기타 서비스	103	933.33	3	2.64	158.71
19	가구내 고용 활동	6	10.64	-	-	-
합 계		44,801	525,867.88	3,321	14,072.64	31,519.14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증감율%)

구 분	2022	2023	2024	2025.10
수 출	3,713.00	3,546	4,055	3,909(+16.2)
수 입	3,589.00	3,263	3,807	3,714(+18.6)
무역수지	124	280	247	195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 목 명	2022	2023	2024	2025.10
각종 전화기 및 부품	57,994	52,379	53,891	48,668(+4.7)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55,536	57,336	72,584	87,294(+47.9)
기계/플랜트 및 부품	45,751	43,128	52,191	48,407(+12.2)
섬유/직물제품	37,566	33,329	37,036	32,931(+8.6)
신발류	23,895	20,237	22,871	19,826(+6.6)
원목 및 목제품	16,011	13,467	16,282	14,039(+6.0)
철강제품	7,993	3,973	4,594	4,589(+24.8)
수송수단 및 부품	11,988	14,157	15,066	14,334(+13.5)
수산물	10,923	8,971	10,040	9,327(+13.1)
원사(Yarn)	4,713	4,355	4,407	3,548(-2.9)
기 타	98,934	103,339	116,569	108,034
합 계	371,304	354,671	405,531	390,997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 목 명	2022	2023	2024	2025.10
전자제품 및 컴퓨터	81,884	87,965	107,053	123,147(+39.1)
기계/플랜트 및 부품	45,192	41,579	48,887	49,552(+24.5)
각종 전화기 및 부품	21,126	8,749	10,403	9,402(+11.1)
의류(원단)	14,706	13,016	14,905	12,505(+1.7)
플라스틱 원료	12,387	9,755	11,780	10,377(+7.8)
각종 철강	11,920	10,425	12,583	8,957(-14.5)
기타 비금속	9,253	7,626	9,554	9,202(17.6)
플라스틱 제품	8,119	7,508	8,853	8,824(+22.1)
화학제품	9,144	7,605	7,735	6,584(+3.3)
화학물질	8,747	7,726	8,286	6,632(-4.3)
기 타	136,423	124,419	140,724	126,260
합 계	358,901	326,373	380,763	371,442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21	2022	2023	2024	2025.10
1	미 국	96,293	109,388	97,020	119,501	126,166
2	중 국	56,009	57,702	61,207	61,211	56,983
3	한 국	21,945	24,293	23,498	25,619	23,838
4	일 본	20,128	24,232	23,314	24,608	22,034
5	홍 콩	11,996	10,936	9,631	12,423	14,328
6	네덜란드	7,686	10,430	10,241	12,993	11,026
7	독 일	7,286	8,968	7,400	7,934	7,781
8	인 도	6,259	7,961	8,498	9,064	8,561
9	태 국	6,161	7,476	7,192	7,782	7,095
10	영 국	5,765	6,065	6,345	7,543	7,044
	기 타	96,782	103,853	100,325	116,853	25,141
	합 계	336,310	371,304	354,671	405,531	390,997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21	2022	2023	2024	2025.10
1	중 국	109,874	117,866	110,644	114,020	150,903
2	한 국	56,155	62,088	52,511	55,925	49,361
3	대 만	20,772	22,631	18,421	22,741	27,106
4	일 본	22,648	23,373	21,638	21,588	20,433
5	미 국	15,270	14,470	13,822	15,102	15,232
6	태 국	12,564	14,092	11,797	12,447	10,898
7	오스트레일리아	7,946	10,144	8,533	7,592	5,996
8	말레이시아	8,148	9,124	7,809	9,133	9,161
9	인도네시아	7,587	9,641	8,728	10,527	9,377
10	인 도	6,950	7,086	5,864	5,829	4,861
	기 타	64,320	68,386	66,606	105,859	68,114
	합 계	332,234	358,901	326,373	380,763	371,442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율%)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10
수출	56,729(+16.9)	60,972(+7.5)	53,479(-12.3)	58,321(+9.1)	51,103(+5.9)
수입	23,965(+16.5)	26,726(+11.5)	25,941(-2.9)	28,440(+9.6)	26,264(+11.0)
무역수지	32,763	34,246	27,550	29,880	24,839

자료원: KITA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목명	2021	2022	2023	2024	2025.10
반도체	14,026(22)	16,240(15.8)	12,729(-21.6)	18,039(+41.7)	19,876(+35.1)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2,050(26.1)	12,527(4.0)	12,350(-1.4)	11,227(-9.1)	8,407(-10.7)
석유제품	1,157(-3.2)	3,733(222.3)	3,327(-10.8)	2,731(-17.7)	1,825(-20.0)
무선통신기기	3,315(-4.2)	2,358(-29.2)	2,166(-8.1)	2,511(+15.9)	1,893(-9.9)
합성수지	2,415(49.5)	2,581(6.9)	2,001(-22.5)	2,333(+16.8)	1,830(-6.9)
기구 부품	2,405(7.3)	2,194(-8.8)	1,861(-15.1)	1,772(-4.8)	1,495(-0.5)
플라스틱 제품	1,174(5.3)	1,067(-9.2)	1,021(-4.2)	1,055(+3.4)	894(+0.8)
철강판	1,267(20.4)	1,069(-15.6)	887(-17.0)	994(+12.0)	900(+15.7)
기타기계류	957(43.0)	793(-17.1)	801(+1.0)	664(-17.0)	531(-7.0)
계측제어분석기	717(4.5)	815(13.6)	734(-9.9)	593(-19.1)	476(-0.7)
기타	17,039	17,242	15,612	16,402	12,976
합계	56,729(16.9)	60,972(7.5)	53,489(-12.3)	58,321(+9.1)	51,103(+5.9)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목명	2021	2022	2023	2024	2025.10
무선통신기기	5,579(12)	5,986(7.3)	4,543(-24.1)	4,678(+3.0)	3,978(+0.2)
의류	3,393(7.9)	3,840(13.2)	3,542(-7.7)	3,593(+1.4)	2,936(-7.1)
컴퓨터	1,659(30.6)	1,948(19.1)	2,075(+6.6)	2,383(+14.9)	2,389(+22.1)
반도체	750(33.8)	787(5.0)	2,053(+160.9)	2,976(+45.0)	4,121(+75.4)
산업용 전기기기	725(26.2)	970(33.8)	1,396(+44.0)	1,699(+21.7)	1,688(+20.2)
신변잡화	984(-4.4)	1,250(27.2)	1,252(+0.1)	1,221(-2.5)	969(-5.0)
목재류	755(19.5)	942(24.8)	722(-23.3)	681(-5.7)	494(-11.2)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876(-14.7)	783(-10.5)	657(-15.9)	598(-9.1)	574(+18.7)
기구부품	624(29.6)	654(4.8)	571(-12.7)	654(-14.6)	611(+14.1)
영상기기	426(8.9)	441(3.6)	409(-7.2)	414(+1.2)	340(-1.8)
기타	8,161	9,103	8,718	9,543	8,164
합계	23,966(16.5)	26,726(11.5)	25,938(-2.9)	28,440(+9.6)	26,264(+11.0)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 2024~2025년 주요 경제지표 >

구 분		시 기	단위	국 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GDP증가율		2024년(연간)	%	7.09	5.03	4.4	5.1	2.5	5.7
		2025년 2Q	%	7.96	5.12	4.5	4.4	2.8	5.5
		2025년 3Q	%	8.23	5.04	2.9	5.2	1.2	N/A
생산	산업생산 (증가율 또는 지수)	2024년(연간)	-	8.4	N/A	124.9	133.1	96.6	1.5
		2025년 8월	-	8.9	N/A	122.0	141.0	92.1	1.8
		2025년 9월	-	13.6	N/A	158.5	141.0	92.0	△1.3
	구매관리자지수 (PMI)	2024년(연간)	-	51.0	N/A	N/A	49.35	49.9	N/A
		2025년 8월	-	50.4	51.5	50.0	49.9	52.7	50.8
		2025년 9월	-	50.4	50.4	50.1	49.8	54.6	49.9
소비	소비자동향지수	2024년(연간)	-	N/A	N/A	100.0	N/A	N/A	N/A
		2025년 8월	-	N/A	117.2	101.0	N/A	N/A	N/A
		2025년 9월	-	N/A	115.0	101.3	N/A	N/A	N/A
	소매판매	2024년(연간)	-	9.0	N/A	104.0	179.2	15.3	1.8
		2025년 8월	-	10.6	3.5	108.7	186.3	N/A	1.4
		2025년 9월	-	11.3	3.7	104.0	189.7	N/A	1.3
	소비자물가 (증가율 또는 지수)	2024년(연간)	%	3.63	N/A	2.4	1.8	108.2	3.2
		2025년 8월	%	3.24	2.31	0.5	1.3	100.1	1.5
		2025년 9월	%	3.38	2.65	0.7	1.5	100.1	1.5
투자	고정자산투자	2024년(연간)	%	△3	4.61	N/A	3.1	N/A	N/A
		2025년 8월	%	27.3	N/A	N/A	N/A	N/A	N/A
		2025년 9월	%	15.2	N/A	N/A	N/A	N/A	N/A
고용	실업률	2024년(연간)	%	2.24	N/A	2.0	3.2	1.0	3.8
		2025년 2Q	%	2.24	N/A	2.0	3.0	0.87	3.9
		2025년 3Q	%	2.22	N/A	2.0	3.0	0.73	4.3
무역	수출증가율	2024년(연간)	%	14.3	2.28	N/A	5.7	5.5	△0.6
		2025년 8월	%	14.5	5.78	1.8	1.9	5.8	4.6
		2025년 9월	%	24.7	11.41	14.5	12.2	19.0	15.9
	수입증가율	2024년(연간)	%	16.7	5.31	N/A	13.2	5.9	1.4
		2025년 8월	%	17.7	△6.56	4.0	△5.9	15.8	△4.9
		2025년 9월	%	24.9	7.17	14.8	7.3	17.5	2.1

[자료원]

- (베트남)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EIC, Moody's,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MIER, S&P
 - (태국) 산업경제실(OIE), 태국중앙은행(BOT), 태국상공회의소대학교(UTCC), 태국상무부(MOC), 태국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
 - (필리핀) Trading Economics, YoY, Investing.com, IHS Markit, PSA, Moody's Analytics, Unemployment rate
- 전망치는 *표시

베트남 진출기업 수출통제 설명회

행사 개요

- **일시**: 2025년 12월 11일(목), 09:40 ~ 12:00
- **장소**: 롯데호텔 하노이, 6층 에메랄드룸
- **주최**: 산업통상부 / 무역안보관리원
- **주관**: KOTRA
- **내용**: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우리기업 이행 우수사례
베트남 전략물자 무역통제 시행령 및 질의 응답

설명회 프로그램

일시	주제	비고
09:40~10:00	참석자 등록	-
10:00~10:30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산업통상부
10:30~11:00	한국의 자율준수(CP) 제도	무역안보관리원
11:00~11:30	우리기업의 CP 모범사례 소개	삼성전자
11:30~12:00	베트남 전략물자 무역통제 시행령	베트남 산업무역부
12:00~12:30	질의응답	전체

문의

KOTRA 하노이 무역관 김경돈 팀장(+84) 24-3946-0511(ext 164), kimkdon@kotra.or.kr

* 자세한 내용은 참가신청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forms.gle/CfGwws3p1jAuEgxz6>



kotra 베트남 비즈니스 NEWS



편집 및 제작 :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 협업 : 코트라하노이, 호치민, 다낭 무역관
☎ +84 24-3946-0511 ✉ hanjisoo@kotra.or.kr <저작권자©KOTRA >